

【특 집】

만주의 타이완인 의사

許雪姬*

┃ 차례 ┃

- I. 서언
- II. 재만 타이완인 의사의 출신과 이주 원인
- III. 만주에서의 의료행위
- IV. 타이완 출신 명의
- V. 만주국 멸망 후의 타이완인 의사
- VI. 결론

국문초록

1895년 5월 청나라가 타이완을 일본에 넘겨준 이후, 타이완에서 잔류했던 청나라 사람들은 모두 1897년 5월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타이완은 일본 제국의 해외영토가 된 것이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조차한 다렌과 뤼순을 획득하고 관동주를 설립하고 점차 만주를 침략해갔다. 1932년 일본이 만주국을 건국하고, 중국 동북지역은 일본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간다. 일본이 최초로 만주를 지배한 것으로부터 2차 대전 패배까지의 40년 동안 만주에는 최소 3천명의 타이완인이 있었고, 이들 중에는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2백명의 의사들이 있었다. 이 논문은 타이완인이 만주에 간 동기, 그들이 의사자격을 획득하고 대형병원을 설립하여 다양한 전문분야의 타이완인 의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던 사실을 다양한 당안, 의사명감, 관보, 신문, 관련 인물들에 대한 구술인 인터뷰 자료 등을 통해서 탐구한다. 이들 중에는 만주국 황제 푸이의 주치의

* 許雪姬, 臺灣中央研究院 臺灣史研究所 特聘研究員兼所長.

** 번역: 김창호(강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황즈정은 가장 유명한 타이완인 의사였다. 또한 타이완인 의사들 중 2명은 성징신문의 상을 받았고, 저명 교수들과 여성 의사들도 있었다.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은 만주국이 사라진 후, 만주에 잔류한 사람들, 타이완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리고 이들 2세의 디아스포라 등을 설명한다.

주제어 : 타이완인 의사, 디아스포라, 만주국, 만주, 일본

I. 서언

이 논문이 만주에서 활동한 타이완인 의사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다음 네 가지이다. 먼저, 의사와 변호사, 교사는 일본 강점시기 타이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다. (*일본 강점시기 타이완에서 의사는 변호사, 교사와 더불어 타이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었다.) 일본 강점기 이전에는 타이완에 서양의학 전공의가 없었다. 의사는 그저 전통적인 한의사(漢醫師)가 있었다. 그들은 일본 강점시기 타이완총독부의학원에서 서양의학을 배운 ‘의사’와 구별하기 위해 ‘의생(醫生)’¹⁾이라 불렸다. 의사는 자유업에 속했고, 수입이 많았다. 또한 총독부의 과도한 간섭을 피할 수 있어서 당시 타이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각광받았다. 변호사는 법학과를 졸업한 후 변호사 시험과 고등문관 시험을 통과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해도 반드시 일본인 변호사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다.²⁾ 그러나 정의를 구현할 수 있고, 소송인의 권익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직업선택도에서 의사 다음으로 높았다. 선생님은 교육자 육성과정부터 총독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지만 사람들이 존경하고 생활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되었다. 당시 민간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직업으로 첫째는 얼음 판매상(賣氷)이고, 그 다음이

1) 賴郁君, 2013, 《日治時期的臺灣漢醫藥》, (臺中)國立中興大學 歷史學系 博士論文, 타이완총독부는 의사와 의생을 구별했으나, 민간에서는 보통 ‘의생’이라 불렀다.

2) 王泰升, 2017, 《去法院報告:日治臺灣司法正義觀的轉型》, (臺北)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 126 - 127쪽.

의사(醫生)이며, 세 번째가 장 가게(開醬間)이라는 말이 회자되었다.³⁾ 이는 의사라는 직업이 존경도 받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사회적 이미지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화베이(華北), 화중(華中), 화남(華南)을 막론하고 대륙에 거주하던 타이완인 중에는 의사가 일정 정도 포함되어 있었다.⁴⁾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타이완에서 공립병원에 취업할 방법이 없었거나, 개인병원을 설립할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둘째 유형은 한 집안에 한 명 내지 두, 세 명의 의사가 있어서 그 중 한 명이 고향에서 이미 개원을 했다면, 다른 사람은 고향을 떠나 멀리 타지에 가서 병원을 개업한 경우이다. 만주지역은 서양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이완인 의사를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신화(新化)의 양씨 집안의 두 형제 량다오(梁道)와 량자이(梁宰)는 모두 타이완총독부의학원을 졸업했지만,⁵⁾ 형이 고향에서 개원했기 때문에 동생은 고향을 떠나 푸순(撫順)에 가서 푸순 탄광의 광부들을 치료했다.

셋째, 만주의 의과대학에서는 타이완을 위해 수십 명의 의사를 양성했다. 만주에는 일찍이 서양 의과대학이 설립되었다. 가장 먼저 설립된 곳은 1892년 영국인 듀걸드 크리스티(Dugald Christie)가 평텐(奉天)에 세운 성경의학당(盛京醫學堂)이다.⁶⁾ 그리고 1911년에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이라 씀)에서 남만의학당(南滿醫學堂 1922년 만주의과대학으로 승격)을 설립했다.⁷⁾ 남만의학당은 중국학생과 일본학생을 위주로 선발했지만, 타이완인들도 선호한 의과대

3) 이들 세 업종은 타이완 발음으로 水(peng), 生(seng), 間(keng)으로 라임이 같고, 또한 모두 색 같이 있는 설탕물, 약물, 소금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4) 華南으로 간 高雄 출신자를 예로 든다면, 104명 중 27명이 의사로, 약 1/5 정도였다. 許雪姬, 2001, <日治時期赴華南發展的高雄人>, 《2001年高雄研究學報》, (高雄)高雄市社區大學促進會, 378 - 379쪽.

5) 형 량다오는 9회 졸업생(1910년 졸업)이었고, 동생 량자이는 10회 졸업생(1911년 졸업)이었다. 景福基金會, 1992, <國立臺灣大學景福校友通訊錄>, (臺北)景福基金會編印, 3 - 4쪽.

6) 크리스티 저, 矢內原忠雄 역, 1982, 《奉天三十年》, (東京)岩波書局, 367 - 376쪽. 저자는 크리스티의 아내이다.

7) 滿洲醫科大學輔仁會, 1978, <滿洲醫科大學, 專門部附屬藥學專門部, 附屬看護婦養成所沿革略>, 《會員名簿》, (東京)滿洲醫科大學輔仁會, 쪽수 미상.

학으로⁸⁾ 졸업생 중에는 90여 명의 타이완인들도 포함되었다.⁹⁾ 그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만철 산하 병원이나 모교 부속병원에서 실습을 마친 다음 만주에 남아 병원을 개원하였다.

넷째, 타이완 출신 의사들의 수준이 높았다. 그래서 당시 만주사람들은 타이완을 ‘의사 섬’이라고까지 여겼다. 만주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신징(新京)과 하얼빈의 의과대학 졸업생, 심지어 만주에 와서 의과시험을 통과한 자, 그밖에 타이완총독부의학당과 일본 및 조선의 의대를 졸업한 의사 등 여러 부류의 타이완 출신 의사가 있었다. 그러나 출신학교가 어디든 간에 타이완인 의사들은 뛰어난 의료기술과 훌륭한 윤리의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신선(大仙)’이라 불렀고, 만주에서 활동한 타이완 출신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타이완을 ‘의사의 섬(醫生島)’¹⁰⁾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 논문은 만주의과대학 기록보관소와 타이완총독부 문서보관소, 그리고 각종 의사 연감, 만주국 관보, 신문, 구술 면담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만주국의 타이완인 의사의 출신지 및 만주에 온 이유를 검토할 것이며, 아울러 만주에서의 의술활동과 대표적 의사 몇 명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끝으로 만주국 붕괴이후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II. 재만 타이완인 의사의 출신과 이주 원인

이 장에서는 주로 만주에서 활동한 타이완출신 의사들이 어느 대학을 졸

-
- 8) 예를 들어, 1927년 타이완 제2중학교를 졸업한 우창리(吳昌禮)은 졸업 후 2년에 걸쳐 타이완 의학전문학교를 응시했지만 떨어졌다. 다음 해 일본으로 가서 시험을 보았으나 역시 불합격했다. 1930년 만주의과대학에는 합격했다. 吳昌禮, <附錄:吳昌禮醫師手記>, 許雪姬 訪問, 藍瑩如 記錄, 2015, <日治時期臺灣人在滿洲的生活經驗>, (臺北)中央研究院臺灣史研究所, 289쪽.
- 9) 南滿醫學堂 졸업생 7명, 滿洲醫科大學 醫學部 졸업생 36명, 滿洲醫科大學專門部 46명과 해방 후 瀋陽醫學院의 3명과 中國醫科大學의 1명을 포함하여 모두 93명이다.
- 10) 許雪姬 訪問, 鄭鳳凰 記錄, 2004, <翁通逢先生訪問紀錄>, <日治時期在「滿洲」的臺灣人>, (臺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21쪽.

업했고, 왜 만주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타이완인 의사의 출신학교

만주에서 활동한 타이완인 의사 중에는 만주의과대학을 졸업한 이도 있지만, 타이완이나 일본, 조선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있었다.

1) 남만의학당/만주의과대학 출신

《만주의과대학 일람》을 통해 대학 학부 졸업생 및 이수자 명단과 본적을 살펴보면, 본적이 푸젠(福建)성이나 광둥(廣東)성이라고 적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단지 몇 명만 타이완이라고 적혀 있다. 심지어 전문의 과정의 타이완 학생의 본적도 대부분 타이완이라고 쓰여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1939년에 이르러서야 변했다. 그들은 왜 본적을 속인 것일까? 먼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1) 연혁 : 만철은 1906년 11월 26일에 설립되었다.¹¹⁾ 1911년 만철은 당시 관동도독이었던 오시마 요시마사(大島義昌, 1906.09.01.~1912.04.26 재임)의 승인을 받아 다렌(大連)병원 평토편원에 남만의학당을 설립했고, 다렌병원장인 가사이 겐지(河西健次)에게 초대 학장을 겸임하게 했다. 그리고 의학당 장학금으로 소양은(小洋銀) 6만원을 기부한 동북3성 총독 자오니쑤(趙爾巽)를 명예 총재로 추대했다. 이 학교는 첫 번째로 설립된 의과 전문대학이다.¹²⁾ 그해 10월에 일본인 본과생 20명과 중국인 예과생 8명에게 입학 허가를 내주고,¹³⁾ 11월에 입학식이 거행했다. 1912년 12월에는 평토편에서 중국학생을 장학금을 주고 입학시켰고, 이후 평토편성과 지린(吉林)성, 선양(瀋陽)에서 매년

11) <新情勢下滿鐵>, <滿洲國現勢>, 康德5(1938)年版, 396쪽. 1906년 6월 7일 일본정부가 내린 칙령 제142호에 의거하여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12) 滿洲醫科大學, 1941, <沿革略>, <滿洲醫科大學一覽>(奉天), 6쪽.

13) 滿洲醫科大學輔仁會, 1978, <滿洲醫科大學, 專門部附屬藥學專門部, 附屬看護婦養成所沿革略> <會員名簿>. 또한 일본어가 능한 중국인이 예과를 거쳐 본과에 들어가 일본인과 같이 교육받을 수 있다.

대여섯 명에서 수십 명에 이르는 학생들을 입학시켰다. 1915년 6월에는 평텐병원(1912년 8월에 다렌병원에서 평텐분원으로 바뀜)이 남만의학당 부속병원이 되었다. 9월에는 제1회 졸업생 11명이 배출되었고, 부설기관인 간호사 양성소에서도 졸업식(5월 시작)이 처음으로 거행되었다. 그리고 1917년 4월에 남만중학교에 남만의학당 예과과정이 개설되었다.¹⁴⁾

1922년 3월 남만의학당은 남만의과대학으로 변경되었다. 그해 11월 6일 관동청에서 만주의과대학 인가를 내주었을 때 예과와 별과가 설치했고, 관련 학칙이 제정되었으며, 베이징협화병원과 교수를 교환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 해부터 여성 실습생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있었는데, 대학 예과와 부설 예과에 중국인 여성에 대한 입학의 허가함으로써 여성에게 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했다. 그리고 이 해부터 남만의학당 이름의 학생모집은 중단되었다. 1925년 4월 별과는 전문과로 개칭되었고, 중국인 학생을 모집했다(전문부는 중국학생만 받았음). 그러나 전문과는 1931년 1월에 모집을 중단했는데, 아마도 개업 자격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1933년 이 문제가 해결된 후 새로운 학제에 따라 다시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왜냐하면 그해 1월에 관청에서 전문과 졸업생들의 개업 자격이 승인되었기 때문이다. 1937년에는 만주의과대학 약학과가 설치되었고, 1941년에는 치과가 개설되었다.

만주의과대학은 원래 만철지방위생과에서 관리하다가 후에는 지방부 관할로 바뀌었으며, 만철총재상이 제정되어 우수학생을 장려하였다. 그리고 이 대학과 관련 있는 잡지는 계간으로 발생한 《동양의학잡지》이며, 제3권부터는 《만주의학잡지》로 이름을 바꿨다. 1926년 7월부터는 월간으로 발행하여 1949년 8월 제42권 5호까지 발행했다. 이는 만주의과대학의 가장 중요한 학술논문지의 역할을 담당했다.

만주의과대학은 일본이 항복한 직후인 10월부터 팔로군이 접수한 후, 다음 달에 소련 군대에게 인계되었다. 1946년 4월 29일에 중화민국 정부가 접

14) 《滿洲醫科大學一覽》, 9쪽.

수하여 중장(中長)철도의과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한 다음 곧바로 국립철도의학원이라고 바꿨다. 그리고 7월에는 국립선양의학원이라고 개명하였고, 쉬송밍(徐誦明)이 초대 원장으로 부임했다.¹⁵⁾ 1948년 11월부터 선양은 다시 중국공산당이 관할하였는데, 국립선양의학원은 1949년 2월부터 중국의과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¹⁶⁾

일본으로 돌아간 만주의과대학 졸업생들은 1951년에 도쿄 가조엔(雅敘園)에서 만주의과대학 창립 40주년 행사를 거행하였고 아울러 《만주의과대학 40주년기념지, 부 업적집(滿洲醫科大學四十周年誌附業績集)》을 발행했다. 1976년에는 만주의과대학사 편집위원회가 조직되어 2년만에 《만주의과대학사》가 완성되었다.¹⁷⁾ 그리고 1978년 교우회인 만주의과대학 보인회(輔仁會)에서 《회원명부》를 편집했는데, 전문부 졸업생 중 제12회부터 제14회까지의 명부는 누락되어 있다.

(2) 남만의학당 졸업생: 남만의학당 졸업자는 총 8명이다. 그중 가장 먼저 졸업한 자는 1925년 6월에 졸업한 보후이(푸젠)와 뤼야오탕(푸젠) 두 사람이다. 그 후 1926년 5월에는 다이션비(타이완), 세원찬(푸젠), 수용룡(푸젠, 재학 중 병사함)이 졸업생 명부에 이름을 올렸으며, 1927년 4월에는 왕파오(타이완), 다이야오위(타이완)가 졸업했다. 1938년 5월에는 린한(타이완) 한 사람만 졸업했다.¹⁸⁾ 그중 뤼야오탕과 다이션비, 다이야오위는 사촌형제 사이이며, 타이

15) 이에 대해서는 1945년 8월부터 11월까지 中長鐵路醫學院으로 개명하였고, 교장은 장보린 카친커우(소련인)이 맡았고, 1945년 11월부터 1946년 4월까지 鐵路醫學院으로 개명하였으며, 董其改가 교장을 맡았고, 7월에 다시 瀋陽醫學院으로 개명하고 徐誦明이 교장을 맡았다는 말도 있다.

16) 중국의과대학의 모태는 중국공산당이 병사치료를 위해 1931년 11월 소비에트지역(江西)瑞金에 설립한 홍군군의학교이다. 이후 중국농공홍군위생학교로 개명하였고, 장정을 따라 옮겨 다니다가 1936년에 陝北으로 옮겼다. 1940년에는 중국의과대학으로 바뀌었고, 延安에 있었다. 1945년 8월 일본 투항하자 동북으로 옮겼고, 하얼빈에 있었다. 1948년 11월 공산당이 瀋陽을 공격한 후에는 다시 瀋陽으로 옮겼고, 國立瀋陽醫學院과 사립인 遼寧醫學院을 접수했다. 《遼寧省衛生志》 493~494쪽 참고. 자료는 大連의 蘇行鑄 의사가 제공했다.

17) 滿洲醫科大學輔仁會, <滿洲醫科大學, 專門部附屬藥學專門部, 附屬看護婦養成所沿革略>, 《會員名簿》.

18) 滿洲醫科大學, 1941, 《滿洲醫科大學一覽》, 147~149쪽.

완 평후(澎湖) 출신이다.¹⁹⁾ 린한은 성적이 뛰어났다. 그는 4년 재학 중 2학년 을 제외하고 모두 만철사장이 수여한 우등상을 받았다.²⁰⁾ 세원찬은 신징(長春)에서 개원한 세추관의 아들인데, 원적은 광동이며, 타이완 풍위안(豐原) 사람이다.²¹⁾ 재학 중 병사한 수용룡을 제외하고 일곱 명은 만주에서 실습을 거친 후 타이완으로 돌아왔다.

(3) 만주의과대학 의학부 졸업생: 1922년 남만의학당은 만주의과대학이 되었고, 학교는 신학제와 구학제로 구분되었다. 구학제는 2년제 예과와 4년제 본과(후에 예과 3년과 본과4년으로 바뀜), 그리고 부설로 4년제 약학과로 운명되었다. 신학제는 6년제 의과로 운명되었으며, 700개 병상을 갖춘 부속병원이 있었다. 또한 부설로 고급직업 간호사와 산후조리학원을 두었다. 6년제 의과에서는 해부학, 생리학, 생리화학, 병리학, 기생충학, 약리학, 위생학, 미생물학, 법의학 등 9개의 전공을 가르쳤고, 연구소에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생리화학, 약리학, 외과, 방사선과를 설치했다.²²⁾ 그리고 학위 취득을 위한 과목으로는 해부학, 생리학, 의화학, 미생물학, 병리학, 약리학, 위생학, 법의학,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소아과, 피부비뇨기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와 중국어가 있었다.²³⁾ 타이완 출신 졸업생은 40명이 있었다. 그러나 학적을 보면 만주국의 3개 성의 이름이 적혀있다. 장룽시는 지린성으로, 황쑤즈는 헤이룽장성으로, 그리고 친셔우런은 싱안난(興安南)성으로 적혀있는데,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표 1 참조) 만주국은 19개 성으로 나뉘었는데, 이상의 3개 성의 위치는 그림1을 참고할 것.

19) 許雪姬, 2002, <日治時期澎湖瓦硯籍的醫生>, 王國裕 編輯, 《澎湖研究第一屆學術研討會論文集》, (馬公)澎湖縣文化局, 409~411쪽.

20) <南滿醫學堂卒業生學籍簿>. 中國瀋陽遼寧省檔案館 소장, 中央研究院 臺灣史研究所 소장 복간본.

21) 許雪姬 訪問, 藍瑩如 紀錄, <謝久子女士訪問紀錄>, 《日治時期臺灣人在滿洲的生活經驗》에 수록, 326~327쪽.

22) 郭衛東, 1993, 《近代外國在華文化機構》, (上海)上海人民出版社, 392쪽.

23) <滿洲醫科大學昭和十年學籍簿> 참고. 중국어를 처음에는 支那語로 했다가 후에 華語라고 고쳤고, 皮膚科는 皮徽科로 바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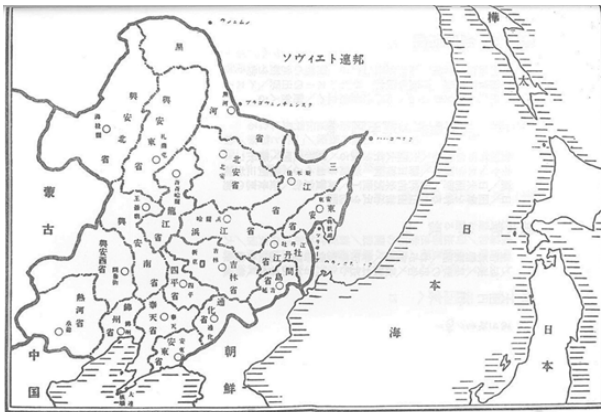
<표 1> 만주의과대학 의학부 타이완 출신 졸업생 명단

괄호 안은 학적에 적힌 관적 표시임.

畢業年代	人數	畢業者
1932年	1名	王大樹
1933年	1名	章榮基(廣東)
1935年	2名	江塗龍、陳松齡
1936年	2名	許燦淵、謝文炫(廣東)
1937年	2名	梁炳元、林秀模
1938年	3名	徐裕增(福建)、劉泗洲、廖涼棟
1939年	3名	黃永盛、洪鴻儒、梁松文(福建)
1940年	4名	周壽源(福建)、章榮熙(吉林)、劉萬、林樹敏
1941年	7名	郭英啓、蘇耀輝、張登財、陳有德、陳東海、林昌德、楊崑松
1942年	2名	黃深智(龍江)、林秀楸(奉天)
1943年	3名	施義德、張登川、陳永福
1944年	2名	陳守仁(興安南)、葉敏盛(福建)
1947年	4名	曾森林、楊有務、張華山、傅宏成
1949年	2名	梁育明、徐德龍
不明年份	2名	張少基、楊鐘靈

자료출처 : 《滿洲醫科大學一覽》 153~166쪽, 180~181쪽, 184쪽, 188~189쪽, <梁金蘭, 梁育明
자매방문기록> 319쪽.

[그림 1] 滿洲國地圖



자료출처 : 武藤富男, 《私と滿洲國》, 東京 : 文藝春秋, 1988년第四刷.

(4) 만주의과대학 전문부 졸업생: 총 41명이 졸업했다. 1922년 만주의학당에서 만주의과대학으로 학교 명칭을 변경했을 때 별과 형태로 개설되었다. 그리고 1925년에 정식으로 전문부로 변경되었다. 전문부와 일반 학부의 차이는 일반 학부는 3년의 예과를 공부한 후 다시 4년의 본과를 공부하는데,²⁴⁾ 전문부 과정은 4년이며, 대학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1929년에 전문부에서 첫 번째 졸업생이 나왔다. 1931년 1월에는 전문부 모집이 중단되었다.²⁵⁾ 그러나 만주국 건국 이듬 해(1933, 대동 2년) 잉커우(營口)와 다롄에서 콜레라가 발생했고, 점차 만주 철도를 따라 확산되었다. 통료 한 곳만 해도 7백 명이 사망했다. 이에 민생부에서는 검역소를 설치하고 의사를 파견하여 수시로 검사를 실시했고, 환자를 치료했다. 또한 전염병 공동 방역을 위해 관동청에 협조를 구했다. 그래서 만철과 군부에서는 주요 도시에 공립병원을 설립하였고, 시골에는 보건소를 설치했다. 그러나 의사 수가 불충분했기 때문에²⁶⁾ 1933년 전문부를 다시 운영했고,²⁷⁾ 4년 후 의사관리규칙에 의거하여 개원 자격증을 주었다.²⁸⁾ 일본 국적이 아닌 학생들의 입학을 독려하기 위해 만주국과 중국 출신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면제해 주었다. 따라서 타이완 학생들은 의학을 무료로 공부하기 위해 출신지를 중국이라고 속여 적었다.²⁹⁾ 출신지에 따른 차별 때문에 생긴 출신지 사칭 문제는 역사가 꽤 오래됐다. 청나라 초기 수재, 거인, 진사 등 타이완에 할당된 과거시험 정원 때문에 주변의 성(특히 푸젠성과 광둥성)에서 학자들이 타이완으로 건너와 출신지를 바꿨다.³⁰⁾ 이것이 출신지 사칭현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35년 10월부터 만주(중국) 출신 입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절반만 받았다.³¹⁾ 1936년 11월, 전문부 학생은 매년 60명을 모집했다. 1939년 4월 대학

24) 許雪姬 방문, 吳美慧 기록, 1995, <黃順記先生訪問紀錄>, 《口述歷史》(臺北), 198쪽.

25) 《滿洲醫科大學一覽》, 9~14쪽.

26) 滿洲文化協會, 1933, <共同防疫>, 《滿洲年鑑(五)》, (大連)滿洲文化協會, 503쪽.

27) 《滿洲醫科大學一覽》, 13쪽.

28) 滿洲文化協會, 《滿洲年鑑(五)》, <共同防疫>, 503쪽.

29) 표 3 《滿洲醫科大學專門部臺籍生畢業名單》 참조.

30) 周鍾瑄, 《諸羅縣志》권5, <學校志>, 80쪽.

전문부는 부속 예비과를 증설했다. 그러나 1938년 4월부터 만주(중국) 출신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면제 제도를 중지했기 때문에 타이완 학생들이 출신지를 사칭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³²⁾ 따라서 1938년 이후의 졸업생들의 출신지 사칭 현상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이는 전문부에 입학하는 타이완 출신 학생들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부에서 공부한 타이완 출신 학생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표 2> 만주의과대학 전문부 타이완 출신 졸업생 명단

졸업년도	수	졸업생 성명(출신지)
1931年	1名	王世恭(福建)
1932年	1名	楊藏興(福建)
1933年	3名	李德軫(福建) 黃順記(福建) 彭春水(福建)
1934年	6名	吳昌禮(福建) 梁成(福建) 黃昌名(福建) 楊金涵(福建) 楊毓奇(福建) 孫崧芳(廣東)
1935年	2名	林清南(福建) 楊藏德(福建)
1937年	8名	王祖培(福建) 林元晃(福建) 林老銓(福建) 林肇基(福建) 洪禮峰(廣東) 楊藏鈺(福建) 廖永堂(福建) 鄭信章(浙江)
1938年	10名	王火炎(廣東) 林欽明(河南) 林肇周(湖北) 黃演敏(山西) 楊德昭(福建) 劉建亭(廣東) 謝知母(廣東) 蔡啓獻(福建) 鄭國輝(福建) 莊金城(浙江)
1939年	5名	洪禮卿 吳大杉 張嵩山(福建) 黃酉時 廖泉生
1940年	2名	高夢雄 劉建止
1941年	1名	高進紀 劉光業(錦州)
1942年	2名	謝久子 林宗輝

1935년 4월 이전 만주(중국)인 입학생은 학비가 면제되었고, 1938년 4월 이전 입학한 만주(중국)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절반만 받았다. 따라서 출신지

31) 《滿洲醫科大學一覽》, 9-14쪽.

32) 《滿洲醫科大學一覽》, 9-14쪽.

사칭 문제가 심각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푸젠성으로 적었는데, 모두 20명이다. 홍리평, 손송광, 왕혜엔, 류젠팅, 셰쯔무 등 5명은 광둥성이라 적었다. 이들이 푸젠성 혹은 광둥성이라고 적은 것은 원래 그곳이 조상들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출신지를 사칭했다는 사실은 해방 후에 편집된 《타이완의사 열람》과 그들 서로 간의 인척관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담자(潭子) 출신 삼형제다. 린친밍은 허난사람이고 적었지만, 그는 담자 사람이고, 부친은 린춘무이다.³³⁾ 그의 사촌 형 린자오저우는 허베이이 출신지라고 적었고, 큰 형 진자오지는 푸젠이라고 적었다. 린친밍의 주소는 구체적으로 河南省 四平縣 范堂村 頭家厝 十三號라고 적혀 있는데,³⁴⁾ 아마도 그곳이 조상의 고향이기 때문일 것이다. 린자오저우는 《만주의과대학 일람》을 통해 보면 후베이이라고 되어 있지만, 만주의과대학 학적부에는 타이완이라 적혀있다. 1938년 이후에는 더 이상 중국인에 대한 학비 면제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1940년 6월 23일에 潭子가 고향이라고 바로 잡은 듯하다.³⁵⁾ 린자오지는 푸젠성을 건지했는데, 주소는 福建省 思明縣 廈門大路라고 적혀있다.³⁶⁾ 그는 세치후타오의 사위이자 동향 사람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38년 이후에는 만주(중국) 출신 학생들에 대한 우대가 더 이상 취해지지 않았고, 따라서 타이완 출신 학생들도 원래 고향인 타이완으로 다시 바뀌서 기록했다.³⁷⁾ 그러나 웨이무원이라는 학생은 1938년 이전 출신지 사칭이 발각되어 제명되었다. 그는 전문부 입학 신청서에 원적을 중화민국 河北省 密縣 廣泰益이라고 적어서 입학이 허락되었으나 이후 그의 원적이 彰化라는 것이 밝혀졌고, 해당 학생을 불러 대면 질문을 한 결과 사실이라고 자백했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 규율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33) 《臺灣人士鑑》(昭和十二年版), 449쪽.

34) <滿洲醫科大學專門部昭和十二年學籍簿>.

35) <滿洲醫科大學專門部昭和十二年學籍簿>.

36) <滿洲醫科大學專門部昭和十二年學籍簿>.

37) 예를 들어 林宗輝는 華北에서 2년 동안 중학교 과정을 공부한 후 專門部에 입학했다. 이때 본적을 河北省 赤城縣이라고 등록한 후 후에 臺灣이라 고쳤다. <滿洲醫科大學專門部昭和十七年卒業生學籍簿>참고.

1935년 5월 16일 교수회의를 열어 제적을 결정했다. 이때 그는 2학년이었다. 그는 여행을 위해 학교에 저축한 돈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³⁸⁾

2) 만주의 기타 의과대학 졸업생

(1) 신징의과대학: 이 대학은 1932년에 설립되었으며, 신징특별시 난링(南嶺)에 있었다.³⁹⁾ 후에 국립으로 바뀌었고, 민생부에서 직접 관리했다. 1941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비를 냈지만, 1941년부터는 면제받았다.⁴⁰⁾ 이는 타이완 출신 학생들이 이 대학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이다. 이 대학은 매년 만주출신 학생 70명과 일본인 학생 40명을 모집했다. 타이완인은 일본인에 포함되어 매년 2,3명 정도 입학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타이완인 중 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11명이고, 10명은 졸업하기 전 만주국이 멸망했다.⁴¹⁾ 미 졸업자 중 일부는 타이완으로 돌아와 학업을 마쳤다.⁴²⁾

(2) 하얼빈의과대학: 이 대학은 하얼빈 南岡大直街에 있었다. 1926년 우렌더가 설립했고, 원래 이름은 하얼빈병원 전문학교였다.⁴³⁾ 1933년 하얼빈의과대학으로 개명했고, 타이완인 4명이 졸업했다.⁴⁴⁾

(3) 만주개척의학원: 1940년 6월 하얼빈, 치치하얼, 룡징(龍井)에 일본 개척민의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대학 졸업자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3년을 해당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했다. 이 학교를 졸업한 타이완인

38) <滿洲醫科大學昭和十年五月至十四年五月休學及退學の文件>, 學內庶 第一四七號(昭和十年五月十八日), <生徒學籍ニ關スル件>.

39) 《滿洲國政府公報》, 第1948號, 康德7(1940)年10月23日, 462쪽, <滿洲國立醫科大學 康德8年(昭和十六年)度日系學生募集公告>.

40) 《滿洲國政府公報》 1328號, 康德5(1938)年9月9日, 256쪽, <國立新京醫科大學招生公告>.

41) 大田豊正. 1991, <新京醫科大學圭泉會名簿>, (大阪)新京醫科大學圭泉會本部, 35 - 104쪽.

42) 예를 들어 제9기생인 葉步嶽은 전후 타이완으로 돌아온 후 곧바로 타이완대학의학원에 입학하여서 전후 제4회가 되었고, 1950년 7월에야 졸업했다. 臺大同學會, 1952, <臺大畢業同學錄>(臺北), 96쪽.

43) 《哈爾濱醫科大學》(哈爾濱), 5쪽.

44) 《哈爾濱醫科大學》에 따르면 타이완성 출신 졸업생 중에는 專門學校 2명, 醫科 5명, 齒科 9명이라고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그중 진짜 타이완 출신자는 1명으로 의과생인 林維喬이다. 그러나 盧昆山과 楊宦奇은 발견하지 못했다.

의사는 모두 7명인데, 모두 자이(嘉義)가 고향이다. 전쟁이 끝난 후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와 嘉義병원에 일했고, 후에는 개인적으로 병원을 차렸다.⁴⁵⁾

(4) 만주국립 육군군의학교: 이 학교는 원래 하얼빈에 설립된 군의 양성소인데, 후에 이름을 바꿨다. 1935년 2월부터 20세 이상부터 22세 미만의 고교 졸업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학비는 전액 무료이며, 4년간 훈련을 마친 후 군의로 임명되었다. 정등산이 이 학교 출신이다.⁴⁶⁾

(5) 신정순천의학원: 이 학교 졸업생은 량량자오 1명이다.⁴⁷⁾

(6) 뤼순(旅順)의과대학: 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황치장 1명이며, 이수자 1명 있다.⁴⁸⁾

그 밖에, 만주 의사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약 7명이 또 있는데, 그들 중 적어도 3분의 1은 만주에 남아 의료사업에 종사했다.

3) 타이완, 일본, 한국에서 졸업한 의사

만주에서 활동한 타이완인 의사 중에는 만주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있지만, 타이완, 일본, 한국에 있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있다.

(1) 타이완총독부 의학교/타이베이 의학전문학교/타이베이제국대학 부속 의학전문부: 타이완 총독부 의학교는 1899년에 현지출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19년 타이완총독부 의학전문학교로 개명했고, 1922년에는 타이베이의학전문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1928년 타이베이제국대학이 설립되자 타이베이제국대학 의학전문부가 되었고, 1936년에는 별도로 의학부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모두 당대의 수재들이다. 그들 중

45) 臺灣省醫師公會, 1996, 《臺灣省醫師公會所屬各縣市局醫師公會會員名冊》, (高雄)臺灣醫界社, 190쪽, 194쪽, 195쪽, 196쪽, 199쪽. 또 다른 한 사람은 黃鳳銘으로 東京滿洲開拓醫學校를 졸업했다고 한다. 그러나 東京인지 아니면 滿洲의 의학교인지는 밝혀 있지 않다. 앞의 책, 156쪽.

46) 吳銅, 1954, 《臺灣醫師名鑑》, (臺中)臺灣醫藥新聞社, 232쪽.

47) 臺灣省醫師公會, 《臺灣省醫師公會所屬各縣市局醫師公會》, 48쪽.

48) 《臺灣同胞在大陸》畫冊編委會, 1993, 《臺灣同胞在大陸》, (福州)海風出版社, 75쪽; 盧昆山, 1979, 《七十回憶》, (臺南)豐生出版社, 62쪽.

만주로 간 의사는 모두 28명이다. 그중 멩텐청, 위안진창, 량자이, 천장저, 양수이런, 셰치우관, 헤치우타우, 쟈런난은 모두 종전까지 머물렀고, 그중 멩텐청,⁴⁹⁾ 위안진창,⁵⁰⁾ 쟈런난⁵¹⁾은 타이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2) 일본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은 일본대학 의학부/일본대학 전문의학과, 큐슈의학전문학교/규슈제국대학 의학부, 쇼와의학전문학교, 치바 의과대학, 나가사키 의과대학, 아이치의과대학, 도쿄제국대학 의학부, 도쿄 여자의학 전문학교, 도쿄싱가의학관, 도요의학전문학교/도요의학원, 오사카 의학전문학교 등을 졸업했다. 그중 도쿄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의사는 7명으로 가장 많다.⁵²⁾ 린언쿠이는 도쿄제국대학 의학부에서 이수한 후 전후 국립 타이완대학 의학원을 졸업했다.⁵³⁾

(3) 한국 경성의학전문학교/경성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는 커윈평과 평텐정 두 명이다. 장문용은 대구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다.⁵⁴⁾ 상첸자이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다.⁵⁵⁾

위의 글에서는 치과 및 의료업계 종사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치과와 약학과를 추가하면 23명이 된다⁵⁶⁾. 이상의 자료들에 등장하는 만주에서 의학을 공부하였거나 의사로 활동한 사람은 약 200여 명에 이른다. 만주에 거주한 타이완인이 대략 3천명이라 한다면,⁵⁷⁾ 의사 수는 약 6.6%로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49) 王河盛 등, 2001, 《臺東縣史·人物篇》, (臺東)臺東縣政府, 75쪽.

50) 許雪姬 방문, 曾金蘭 기록, <林更味女士訪問紀錄>, 《日治時期臺灣人在滿洲的生活經驗》, 394쪽.

51) 許雪姬 방문, 藍瑩如 기록, <黃文生先生訪問紀錄>, 《日治時期臺灣人在滿洲的生活經驗》, 399쪽. 簡仁南은 黃文生 의 셋째 이모 남편이다.

52) 東京醫學專門學校, 1941, 《南滿會名簿·會誌第六刊》, (東京)東京醫學專門學校, 4쪽, 7쪽, 8쪽, 16쪽, 17쪽. 張文南과 陳尙明은 모두 명부에 없다. 전자는 <居住長春臺灣省民簿>(民國35年1月28日)에서 볼 수 있고, 후자는 吳銅, 《臺灣省醫師名鑑》 66쪽에서 볼 수 있다.

53) 景福基金會, 《國立臺灣大學景福校友通訊錄》, 136쪽.

54) 陳虹媛, <放眼帝國、伺機而動：在朝鮮學醫的臺灣人>, 《臺灣史研究》(臺北), 2012.3, 91쪽.

55) 臺灣師範大學 臺灣史研究所 張素玟 교수는 2018년 12월에 방문했다.

56) 滿洲醫科大學 藥學部에는 11명의 타이완출신자가 있다. 그중 1명이 여학생으로 謝秋濤의 딸 林青娥이다. 滿洲醫科大學輔仁會, 《會員名簿》, 57 - 59쪽. 그밖에 12명은 치대생이다.

57) 長春臺灣省同鄉會會長 郭松根, <爲呈請指定輪便接回東北台胞由>(民國35年2月23日), “東北의 타이완 동포는 모두 3천명이다.”

2. 만주로 가서 의료 활동한 이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주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타이완 출신 학생들이 현지에서 실습을 마친 후 다시 고민한 것은 계속해서 만주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그렇다면 타이완이나, 일본,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타이완인들은 왜 만주로 가서 의료사업을 시작했을까?

(1) 만주 현지의 의사: 1935년 만주국에서는 양의사 수와 한의사 수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양의사는 2,487명이고, 한의사는 10,317명으로 모두 12,814명이다. 인구 만 명당 양의사는 0.8명이고, 한의사는 3.3명꼴이다.⁵⁸⁾ 이는 당시 만주국에서 양의사의 수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1937년에 이르러 양의 2,132명, 한지의(*일정 지역에서만 활동 가능한 의사-역주) 830명, 한의 7,375명, 치의사 382명, 약제사 678명⁵⁹⁾ 약간의 개선은 있었지만, 현지에서 배출한 의사는 여전히 부족했고, 따라서 이는 타이완 출신 의사들이 만주에서 개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 일본인 스승과 학우의 추천: 만주국에서 활동한 의사들의 가족들을 취재해 보면, 그들이 일본인 교수와 학우의 추천으로 만주에 가게 되었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예를 들어, 스린위찬은 岡山 사람인데, 일본대학 전문부 의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인 학우가 하얼빈의 만철병원에서 일할 것을 추천했고,⁶⁰⁾ 이에 그는 1936년에 만주로 갔다.⁶¹⁾ 그리고 멩텐칭이 만철의 대련병원에 취직한 이유는 그 병원 원장의 추천 때문이다.⁶²⁾

(3)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이미 만주에서 거주하고 있음: 타이베이 출신의 홍리평, 홍리칭, 홍리셴 삼형제 중 첫째와 둘째는 만주의과대학 전문부를

58) 滿洲國史編纂刊行會, 1971, 《滿洲國史》, (東京)財團法人滿蒙同胞援護會, 1190쪽.

59) 豐田要三, 1942, 《滿洲帝國概覽》, (新京)滿洲事情案內所, 130쪽.

60) 許雪姬 訪問, 王美雪 紀錄, <侯金魚女士訪問紀錄>, 《日治時期在「滿洲」的臺灣人》, 87쪽.

61) <臺灣總督府旅券下付簿>, 昭和11年3月28日, 『滿洲國ハルビン就職』, 石林玉燦, 昭和11年7月17日 『夫同棲ノ爲』.

62) 林吉崇, 1997, 《臺大醫學院百年史》(上), (臺北)國立臺灣醫學院, 168쪽.

졸업했고, 셋째는 신정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삼형제가 만주로 간 까닭은 아버지 흥란이 멩텐청의 박애의원에서 비장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⁶³⁾ 그리고 평위안 출신 세다롱의 차남 세치우관과 넷째 아들 세치우타우는 모두 타이베이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들 두 사람은 모두 만주로 이주했다. 세치우관은 4남 2녀를 낳았는데, 모두 의사가 되어 만주에 남아 활동했다. 자녀 중 차녀 세지우즈와 그녀의 남편 류젠즈는 전후에 타이완으로 돌아왔고, 나머지 자녀들은 모두 베이징에 남았다.⁶⁴⁾

(4) 일본 통치에 대한 반항 혹은 조국에 대한 동경: 쟈런남을 예로 들어 보면, 그는 타이베이대학교를 졸업했고, 일찍이 타이완문화협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으며, ‘신타이완연맹’에서도 보통 회원 자격으로 활동했다. 아울러 타이완총독부에서 활동을 금지한 ‘타이완의회기성동맹회’의 이사였다.⁶⁵⁾ 그가 타이완을 떠난 것은 타이완총독부의 통치와 관련이 있다.⁶⁶⁾

(5) 연합군의 일본 본토에 대한 폭격으로 인한 만주 이주: 동양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왕통평은 일본 열도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배를 타고 타이완으로 귀국하려 했으나, 해상에서의 공격으로 배가 자주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진퇴양난 처해 있던 중 친구의 권유로 만주로 가게 되었다.⁶⁷⁾ 또한 그의 형 왕통잉은 교토제국대학 기계과를 졸업했으나, 같은 이유로 동생과 함께 만주로 이주했다.⁶⁸⁾

63) 盧崑山, 《七十回憶》, 19쪽.

64) 許雪姬 訪問, 藍瑩如 紀錄, <謝久子女士訪問紀錄>, 《日治時期臺灣人在滿洲的生活經驗》, 325 - 350쪽.

65) 臺灣總督府警察局, 1986, 《臺灣總督府警察沿革誌》(三), (東京)綠蔭書房, 161쪽, 337쪽, 358쪽.

66) 郭瑋, 1989, <大連地區建國前的臺灣人及其組織狀況>, 《大連文史資料》(六), 67 - 74쪽.

67) 許雪姬 訪問, 鄭鳳凰 紀錄, <翁通逢先生訪問紀錄>, 《日治時期在「滿洲」的臺灣人》, 102쪽.

68) 許雪姬 訪問, 鄭鳳凰 紀錄, <翁通楹先生訪問紀錄>, 《日治時期在「滿洲」的臺灣人》, 463 - 464쪽.

Ⅲ. 만주에서의 의료행위

당시 만주에서 공립병원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관계가 있어야 했는데, 타이완인들이 선호한 곳은 만철 산하 병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병원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개인이 스스로 병원을 열었다. 물론 자신이 직접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만주에서 의술활동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나 제약이 있을까? 그리고 개업 상황은 어떠한가?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만주출신 의사의 자격증 취득 문제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로부터 관동주를 취득하였고, 이후 관동주 및 만주철도부속지는 일본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관동주에서는 먼저 일본이 1901년 1월에 반포한 「의사취체규칙」에 근거하여 관동청 장관 혹은 내무대신이 발행한 허가증을 취득하고, 의사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개원할 수 있다.⁶⁹⁾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허가증을 받으려면 일본의학원을 졸업하거나 의사고시를 합격해야 한다. 타이완총독부의학교는 학제가 5년제였다. 즉 공학교 졸업 후 다시 예과 1년, 본과 4년을 공부해야 했다. 다시 말해 의학과정 훈련은 중등학교와 수준이 비슷했다. 따라서 타이완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타이완 의학독업사’라는 명칭을 부여받았다. 만약 그들이 공립병원에 취업하려면 먼저 촉탁이나 고용원부터 시작해야 했다. 일본 본국의 의사자격시험을 통과해서 일본 내무대신이 발행한 개업허가를 취득하지 않으면 일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의학교 졸업생은 종종 다른 지역에 가서 개업했다. 1919년 타이완총독부의학교는 타이베이의학전문학교로 바뀌었고, 그 후에 졸업한 학생들은 ‘타이완 의학사’로 불렸지만, 여전히 일본 내지에서는 개업할 수 없었다. 1936년에는 타이베이제국대

69) 中溝新一, 1938, <醫師の取締>, <滿洲年鑑>(四), (東京)日本図書センター, 404쪽.

학 의학부가 설립되었고, 졸업생은 ‘의학사’ 학위를 수여되었다. 이때부터 일본 통치지역에서는 개원 제한을 받지 않았다.⁷⁰⁾ 그렇다면 관동주의 타이완인 의사들은 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을까? 그리고 1905년 잉커우의 동인회병원에서 타이완인 의사가 의료 활동을 벌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의료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했을까?

원래 타이완의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타이완 이외의 지역에서는 개업 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서양의 식민지에 있었던 동남아 국가들은 의료기관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타이완출신 의사들에게 개원 자격을 주지 않았다. 1912년 이전에 해외에서 활동한 타이완인 의사는 현지 일본정부나 단체가 초청장을 보낸 후 총독부에서 허가를 내준 사람만 가능했다. 만일 타이완인 의사가 현지에서 실시하는 의사자격증 시험에 참가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자존심이 크게 상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명예에도 누를 끼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타이완의학교 교장 高木友枝는 이 대학 졸업생들이 의술은 물론 외국어 능력도 뛰어나다는 점을 들어 타이완총독부에 총독부가 말레이시아 정부와 영국령 싱가포르 정부와 교섭하여 타이완출신 의사들에게 개원 자격을 허가하도록 하고, 관동주에 대해서는 일본 내무성에서 허가한 의사들과 동일한 자격을 승인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⁷¹⁾

이에 타이완총독부에서는 1912년 10월 개척국 총재 겸 관동도독 민정장관 白仁武(1908.05.15~1917.07.30 재임)에게 타이완총독부의학교 졸업생의 개원 자격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白仁武는 타이완인 의사가 관동주에서 내무성에서 발행한 허가증과 동일한 개원자격을 취득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동주에서 의료 활동을 벌이는 것은 반대하지 않았다.

70) 范燕秋, 2000, <從臺灣總督府檔案看日治時期的公共衛生>, 國史館編著, <臺灣史料的蒐集與運用研討會論文集>, (新店)國史館, 151 - 197쪽.

71) <臺灣總督府公文類纂>, 大正元年十五年 보존, 三卷 三門 十類, <醫學校醫師資格具申>.

그 이유는 관동주에는 중국인과 외국인이 섞여 사는 지역이므로 앞으로 의사 자격에 관한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이완인 의사의 자격은 대련 민정서 관학구역에서 이미 개업한 세치우관을 사례로 삼아 개업범위와 지역에 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한번 신청된 것은 재차 허가를 내주었다. 일종의 한지의⁷²⁾ 방법과 비슷하게 처리했다.⁷³⁾

만주국 설립 후 의사법은 1936년 11월 26일에 공포되었으며, 1937년 3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기본적으로 볼 때, 그 이전에는 만주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등록만 하면 의사자격증을 바로 취득할 수 있었다. 새 법률의 제1조에 따르면, 의사 영업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가 필요했다. 1. 정부기관에서 설립한 공립의대 혹은 문교부 대신이나 몽정부(蒙政部) 대신이 지정한 사립 의대 졸업생, 2. 의사고시 합격자, 3. 외국의 의과대학 졸업생 혹은 외국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의사자격 인가를 받은 자.⁷⁴⁾ 그러나 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관 부서 대신은 제1조의 규정에 구속받지 않고 지역과 기간에 제한을 둔 상태에서 개업 허가증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1937년 3월 1일 <의사법> 실시 전에 이미 관방의 의사 허가증을 받은 서양의학 종사자는 ‘이 법에 따라 의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⁷⁵⁾ 따라서 타이완 의사는 만주에서 영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2. 만주인 거주지의 병원 설립과 현지인 치료

만주에서 일본정부가 설립한 도시에는 대부분 일본인 거주지역이 있다. 그러나 타이완인 의사가 세운 병원은 대부분 주요 지역 중 일본인과 관리들이 살고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치료대상은 일본인이

72) 이른바 限地醫는 비정식 醫學校를 졸업한 의사를 말한다. 특수 상황에서 산간벽지에 정해져 있다. 원래 자격이 정해진 바는 없고, 기술을 심사한 후 지역을 한정시킨다. 지역과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한시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다. 이를 한지의라 한다. 李騰嶽, 1952-1962, 《臺灣省通志稿·政事志衛生篇(一)》, (臺北)臺灣省文獻會, 64-66쪽.

73) 《臺灣總督府公文類纂》, 大正元年十五年 保存, 三卷 三門 十類, <醫學校醫師資格/義二體照會>.

74) 《滿洲國政府公報》, 第805號, 康德3(1936)年 11月 26日, 321-322쪽.

75) 《滿洲國政府公報》, 第805號, 康德3(1936)年 11月 26日, 323쪽.

아니라 현지 지역 주민들이다. 현지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워야한다. 타이완인들은 언어에 재능이 있다. 일본 통치 시절 타이완인 의사는 일본어와 타이완어(넓은 의미의 타이완어는 민남어와 객가어 및 여러 종류의 원주민 말을 포함하고 있음)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다수는 어릴 적에 몇 년 동안 개인 서당에서 공부한 적이 있다. 그래서 만주의 현지어를 빠르게 배울 수 있다.⁷⁶⁾ 예를 들어 1912년 타이완총독부의 학교를 졸업한 위안진창은 1933년 6월에 신징으로 가서 五馬路에 위치한 창춘호텔 1층을 얻어 병원을 개업했다. 또한 신징공방기술원 교사로 재직하던 차오치를 도와 방을 얻어주었고, 東三馬路의 방도 세를 얻었다.⁷⁷⁾ 그리고 위안진창의 숙부 위안슈첸은 타이완에서 한지로 활동하다가 만주로 와서 개업했고, 병원은 신징 외교의 二道河에 있었다.⁷⁸⁾ 그들은 현지인 진료가 항상 가능했다. 그래서 만주국 멸망 후 신경의 타이완인들은 위안슈첸의 권의에 따라⁷⁹⁾ 신징 외곽의 新立城으로 피했고, 현지인들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 타이완인들이 만주인 거주지에서 정착한 이유는 만일 일본인 거주 지역에 살다가 후시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⁸⁰⁾ 이것은 만주국에서 공직을 맡은 타이완인들⁸¹⁾이 대부분 신징의 관사나 관사 대용 건물에 거주한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타이완인 의사들은 신징, 선양, 다렌, 하얼빈 등 대도시에서 개업했지만, 세치후관은 1921년 만주 최북단 헤이룽강에서 개업했고,⁸²⁾ 황순지는 開原에서 병원을 열었으며,⁸³⁾ 치과의사인 왕구이린은 四平에서 했다.⁸⁴⁾ 그리고 리안은 30세가 되

76) 만주의 현지어이다. 현재 대륙에서 말하는 普通話이며, 타이완에서는 國語라고 한다.

77) 許雪姬 訪問, 鄭鳳凰 紀錄, <林更味女士訪問紀錄>, 《日治時期在「滿洲」的臺灣人》, 366 - 367쪽.

78) 袁樹泉의 딸 袁櫻雪은 부친이 限地醫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許雪姬 訪問, 鄭鳳凰 紀錄, <葉鳴崗先生 訪問紀錄>, 《日治時期在「滿洲」的臺灣人》, 56 - 57쪽.

79) 許雪姬 訪問, 鄭鳳凰 紀錄, <翁通楹先生 訪問紀錄>, 《日治時期在「滿洲」的臺灣人》, 469 - 470쪽.

80) 許雪姬 訪問, 鄭鳳凰 紀錄, <林更味女士訪問紀錄>, 《日治時期在「滿洲」的臺灣人》, 378 - 379쪽.

81) 재만 타이완인 관리는 최소 139명이다. 그중 고위관리는 57인이다. 許雪姬, 2014, <滿洲國政府中的臺籍公務人員>, 許雪姬編, 《臺灣歷史的多元傳承與鑲嵌》, (臺北)中央研究院臺灣史研究所, 63 - 65쪽.

82) 《盛京時報》第4466號, 民國19(1930)年 9月 30日, 第4版.

83) 許雪姬 訪問, 吳美慧 紀錄, <黃順記先生訪問紀錄>, <口述歷史>(臺北), 1995.6, 201 - 202쪽.

기 전에 이미 만저우리병원장에 임명되었다.⁸⁵⁾

그밖에 몇몇 타이완인 의사는 공업도시에서 개업했는데, 주로 광부들을 대상으로 의료 활동을 펼쳤다. 그중 량자이는 1914년 만주로 갔고, 먼저 만철병원에서 의료기술을 연마하는 한편 현지 사정을 익혔고, 현지 인사들의 신임을 얻은 후 탄광도시 푸순에서 천생병원을 열었다. 《타이완신민보》 기자 세춘무가 푸순에서 개업한 그를 취재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푸순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만철병원으로 가지 않고 그가 운영하는 천생병원으로 와서 치료받는 것을 목격했다. 왜냐하면 만철병원은 고위직 관리들에게는 친절했지만,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소홀히 대했고, 관료적인 어투에, 심지어 언어의 장벽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량자이는 광부들의 신임을 얻고 있었다. 량자이가 세춘무를 데리고 광부숙소를 참관하러 갈 때, 광부들은 량자이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평소에도 량자이의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⁸⁶⁾ 또한 鞍山에서 개업한 양청하이⁸⁷⁾와 本溪에서 개원한 우젠마오⁸⁸⁾는 모두 공업도시를 선택한 의사들이다.

3. 대도시 종합병원 설립과 타이완인 의사 모집

대련에서 활동한 타이완인 의사는 대련 현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귀웨이가 전한 보도에 따르면, ‘1917년 멩텐청이 박애병원을 개업한 직후 계속해서 천잉이 설립한 보애병원, 쟈런난의 인화병원, 양수이런의 민생병원, 왕주제의 동덕병원, 루쿤산의 자애병원(와방점), 홍딩린의 홍광병원(여순), 루칭츠의 청지의과병원, 천위안탕의 대화의과병원, 그리고 귀진무, 정

84) 滿洲聯合齒科醫學會, 1943, 《本會所屬各齒科醫師會會員名簿》(新京), 24쪽.

85) 桑原俊一郎 編, 1938, <卒業生の活躍狀況を語る座談會>, 《あさり第52號彰化第一公學校創立四十周年紀念》, (彰化)彰化第一公學校, 78 - 79쪽.

86) 謝春木, <新興中國見聞記>, 謝春木 著, 1994, 《臺灣人は斯く觀る》, (東京)龍溪書舎, 昭和5(1930)년 판 복간, 163 - 168쪽.

87) 許雪姬 訪問, 蔡說麗 紀錄, <盧昆山, 李謹愼夫 訪問紀錄>, 《口述歷史》(臺北)5, 1994.6, 276쪽, 盧昆山 의사는 鞍山 天生醫院에서 2년 재직했다.

88) 吳銅, 《臺灣醫師名鑑》, 70쪽.

귀후이, 뤼텐신, 류완, 린치저우, 차이바오장, 장원용 등이 20여 곳에 개인병원과 진료소를 개업했다.’⁸⁹⁾ 그중 멩텐청이 연 박애병원과 젠런난이 설립한 인화병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징의 백천병원, 량자이의 천생병원도 눈여겨 볼만하다.

1) 멩텐청의 박애병원

멍텐청은 1914년 다롄 만철병원으로 가서 일하다가 잠시 小岡子에 있는 개인 병원에서 일했다. 1917년 사직한 후 西崗 永樂街에서 박애병원을 세워 모르핀, 아편, 성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했다. 1919년에는 원래 자리에 병원을 재건축했는데, 그 규모가 만철병원 다음으로 컸다. 1927년에는 寺兒口에 병원을 하나 더 설립하여 타이완에서 귀진무를 초빙했다. 1932년 박애병원은 규모를 더 확장하면서 부원장으로 日沖飛郎/娜를 임명했고, 진료항목도 확대했다.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이 되었다. 그 후 분원에도 원장을 두었는데, 예잉성(멍텐청 부인 천씨의 생질)을 원장으로 임명했다. 나중에는 甘井子에도도 분원을 세웠고, 大華와 聖德街에는 진료소를 설립했다. 이 병원의 전성기에는 매일 2,3천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 병원에서 근무한 타이완인 의사 쉬인거는 내과 과장을 맡았다. 또한 이 병원에는 3명의 여의사가 있었는데, 타이완출신 비장 전문의 홍란도 포함되었다. 박애병원을 세운 멩텐청은 의술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사학교를 설립하여 신원이 확실한 여학생들을 입학시켰다. 그녀들은 졸업한 후 관동주에서 시행한 조산사 시험에서 매번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그 결과 학교는 관청으로부터 교육위탁 허가증을 취득했다. 이후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일본 관할 지역에서 조산소를 열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만주, 산둥, 상하이 등지에서 수 백 명의 조산사를 배출했다. 멩텐청은 환자 진료 이외에 요동지역의 흑열병을 조사하고 연구했고, 흑열병 예방의 발전을 위해 그 연구 결과를 《만주의학 잡

89) 郭瑋, 1988, <大連地區建國前的臺灣人及其組織狀況>, (大連)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遼寧省大連市委員會文史資料委員會 編, 《大連文史資料》6, 62쪽.

지》를 통해 발표했다. 그리고 그는 의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후에 만주의 과대학을 진학했고, 1936년에 졸업했다.⁹⁰⁾

2) 젠런난의 인화병원

젠런난은 1921년 타이완총독부의학교를 졸업 한 후 일본의과대학에서 진수과정을 거친 후 멩텐청이 설립한 대련 박애병원에 가서 일하다가 만철 대련병원 제1 외과에 취직했다. 그 후 본인인 대련시 감부통에 인애병원을 설립했고, 이후 대산에 분원을 설립했다. 병원에서 조수를 지낸 친척 황원성의 말에 따르면, 인화병원에는 내원한 환자들이 많았는데, 특히 음력설 전에 가장 바빴다고 한다. 환자의 대부분은 산둥성에서 온 쿠리들인데,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대련으로 왔고, 무리의 반장이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진찰을 받았다고 한다. 이 병원에서 일한 사람 중 친척인 루쿤산은 조수로 일한 적이 있고(그는 후에 하얼빈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스스로 병원을 개업했음),⁹¹⁾ 만주에서 한지의 시험에 합격한 황자이환(황원성의 형)은 진료를 담당했다. 그리고 간호사 6명 중 2명은 타이완출신이며, 그중 황위샤는 황자이환의 여동생이다.⁹²⁾

3) 량자이의 천생병원

량자이는 멩텐청과 같은 해인 1914년에 만주에 도착했다. 그는 만철병원을 거쳐 무순 천금채에 천생병원을 개업했다. 그는 광산노동자에게 친절했고, 인간평등에 대한 신념이 있어 부자에게는 돈을 더 받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현지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1924년 일본 당국은 푸순에 신도시를 계획했으나, 량자이는 1929년이 되어서야 병원을 2층

90) 顧明義 等, 1991. 《日本侵古旅大四十年史》, (瀋陽)遼寧人民出版社, 457쪽. 王柏懷, 1990, <孟天成與博愛醫院>, 《大連文史資料》7, 46 - 49쪽.

91) 盧昆山, 《七十回憶》, 18 - 21쪽.

92) 許雪姬 訪問, 藍瑩如 紀錄, <黃文生 訪問紀錄>, 《日治時期臺灣人在滿洲的生活經驗》, 381 - 384쪽.

으로 신축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 초기에 인구가 적어 1931년에야 이사했다. 이 병원의 가장 큰 특징은 의사 대부분이 친척관계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카 량빙위안, 량칭, 량송원, 사위인 린창더, 조카사위 뤼푸위애가 그들이다. 그리고 의사인 우롄팡, 가오진지, 량창쯔, 류한, 왕휘엔 등과 5,6명의 조수, 심지어 간호사들도 모두 타이완 출신이다.⁹³⁾

4) 세치우관의 백천병원

세치우관은 헤이룽강에 도착한 지 6년 만에 신징으로 와서 개업했는데, 이것이 첫 번째 백천병원이다. 병원은 기차역 부근의 일본인 거리에 있었고, 두 명의 타이완인 의사를 고용했다. 큰 아들 세윈찬(내과)은 만주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삼마로에 두 번째 백천병원을 설립했다. 둘째 아들 세윈센(신장과)은 만주의과대학 졸업 후 三道街에서 세 번째 백천병원을 열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딸 세치우즈(내과)가 만주의과대학 전문부를 졸업한 후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五馬路에 네 번째 백천병원을 개원했다. 딸은 졸업 후 사위인 류젠쯔(외과)와 이곳에서 일했다.⁹⁴⁾ 세치우관은 부인 두 명을 두었고, 모두 4남 2녀를 낳아 길렀다. 그의 자녀들은 모두 의사였다. 물론 이러한 의사 집안은 보기 힘들다.

위의 예를 통해 만주에서 활동한 타이완인 의사들 사이에 혈연과 혼인 관계가 밀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세치우관 집안의 큰 딸 린칭롄은 소아과 의사이며, 사위 장충산도 의사였다. 그는 신징 西三馬路에서 진인병원을 개업했다. 장충산의 남동생 장화산과 장타이산도 만주의과대학 전문부를 졸업했다.⁹⁵⁾ 또한 둘째 사위 류젠쯔의 형 류젠팅도 의사였다.⁹⁶⁾ 게다가 공공위생에 근무한 세치후타오와 상업에 종사한 동생 세히우

93) 許雪姬 訪問, 蔡說麗 紀錄, <梁金蘭, 梁育明 姊弟 訪問紀錄>, 《口述歷史》5, 1994.6, 307 - 319쪽.

94) 許雪姬 訪問, 藍瑩如 紀錄, <謝久子女士訪問紀錄>, 《日治時期臺灣人在滿洲的生活經驗》, 338 - 339쪽.

95) 《滿洲醫科大學一覽》, 190쪽; 張泰山, 《滿洲醫科大學輔仁會會員名簿》, 41쪽; 張華山, 《滿洲醫科大學一覽》, 171쪽; 《滿洲醫科大學一覽》, 170쪽.

팅, 큰형 세춘즈를 더하면, 풍원의 세씨 집안은 만주에서 40년 동안 살았으며, 2세들은 대부분 만주에서 출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IV. 타이완 출신 명의

만주에는 타이완인 명의와 의료행정 시스템에 종사한 타이완 의사들이 많았다. 그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 만주국 황제 푸이의 주치의 황즈쯩

황즈쯩은 타이페이 출신이다. 부친 황엔쥘은 타이완총독부의학교를 졸업했고, 중국 경험이 있었다. 황즈쯩은 아마도 한지의였을 가능성이 높다.⁹⁷⁾ 원래 친척 동생 황슈구이와 함께 상하이에서 개업한 적이 있다. 1931년 상하이사변 때 병원이 전소되었다. 그 후 세제스의 소개로 신징으로 가서 대동병원을 열었다. 1932년 3월 1일 세제스가 만주국 외교부 총장에 임명되자 대동병원은 외교부 위탁병원이 되었다. 그 후 황즈쯩은 병원을 그만두고 만주국 궁내부 직속 의사로 활동했다.⁹⁸⁾ 다시 말해 푸이의 주치의가 된 것이다.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이 공격해오자 관동군은 신징을 포기하고 임시 수도를 通化로 정했기 때문에 황제와 황실의 인원들, 대신들은 모두 通化로 옮겼다.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자, 8월 16일 푸이는 大栗子에서 어전회의를 개최하고 만주국 해산을 결정하고, 황제에서 퇴위했다. 그리고 푸이는 일본인의 계획에 따라 일본으로 가려했다. 그는 먼저 탑승할 9명의 동행인을 친히 선발했다. 그중 6명은 친척이며, 2명은 내시였다. 황즈쯩은 주치의 자격으로 동행자에 포함되었다. 이 9명과 일본인 3명은 3팀으로 나뉘

96) 劉建止 의사 제공.

97) 《臺灣人士鑑》(1937年版), 121쪽. 黃子正는 臺北醫專을 졸업했다. 그러나 《國立臺灣大學景福校友通訊錄》에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98) 本田六介, 1940, 《日本醫籍錄》, (東京)醫事時論社, 15版, 19쪽.

19일 선양으로 가서 다시 일본으로 가려했다. 그러나 선양에 도착한 후 소련군에게 체포되어 20일 소련 치타 교외의 모루코프카로 압송되었고, 11월 6일에는 하바롭스크 외곽의 흥하자로 옮겨졌다. 1946년 7월 3일 다시 하바롭스크 제45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1950년 7월 28일 소련은 푸이 등 전범을 중국 측에 인도하기로 결정했고, 8월 1일 중국과 소련 양국은 綏芬河에서 정식으로 인도했다. 8월 3일 전범 일행은 푸순전범관리소에 수감되었다. 이 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푸순은 국경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전범 일행은 다시 하얼빈으로 鐵籠子 감옥으로 옮겨졌고, 1954년 3월 17일 다시 푸순감옥으로 오기 전까지 그곳에서 수감되었다. 1957년 1월 27일 황즈펑은 내시 리 귀슁, 푸이의 세 조카 민짚, 민탕, 민옌 등과 함께 석방되었다.⁹⁹⁾ 황즈펑의 가족들은 이미 타이완으로 돌아왔다.¹⁰⁰⁾ 황즈펑은 옥중에서 폐결핵에 감염되었고, 병세가 악화되자 푸순전범관리소에서는 그를 티에링병원(형무소 병원)으로 이송하여 본인의 병 치료와 수감자들의 치료를 돕게 했다. 그러나 얼마 후 그곳에서 병사했다.¹⁰¹⁾ 일본작가 入江曜子에 따르면, 그가 1991년 말에 베이징에 가서 푸순전범범죄관리소장을 역임한 진위안을 취재했을 때, 진위안은 황즈펑이 전범으로 12년을 산 것이 아니라면서, 평상시 그는 어떠한 원한을 표출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부이에게 오랜 기간 동안 황제폐하를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¹⁰²⁾

99) 자세한 사항은 다음 4권의 책을 참고할 것. (1) 毓岳, 1993, 《我跟隨溥儀二十年—末代皇子回憶錄》, (北京)紅旗出版社, 33 - 100쪽, (2) 毓嶠, 2000, 《末代皇帝的二十年—愛新覺羅毓嶠回憶錄》,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32 - 278쪽, (3) 愛新覺羅溥傑 著, 葉祖孚 執筆, 2001, 《溥傑自傳》, (北京)中國文史出版社, 7 - 148쪽; 李國雄 口述, 王慶祥 撰, 1999, 《隨侍溥儀記實》, (北京)東方出版社, 229 - 307쪽.

100) 許雪姬 訪問, 蔡說麗 紀錄, 1994, <黃洪瓊音女士訪問紀錄>, 《口述歷史》5(臺北), 245쪽. 黃씨의 아내 洪瓊音은 天津에서 남편을 기다리다 1947년 음력 5월에 세 자녀를 데리고 타이완으로 돌아왔다.

101) 入江曜子, 1998, 《貴妃は毒殺されたか—皇帝溥儀と關東軍參謀吉岡の謎》, (東京)新潮社, 417쪽.

102) 入江曜子, 《貴妃は毒殺されたか—皇帝溥儀と關東軍參謀吉岡の謎》, 416쪽.

2. 《盛京時報》 과학 분야 盛京賞을 수상한 세치우타오와 왕뤄

《盛京時報》에서는 ‘자국의 문화를 촉진하고,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1936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盛京賞을 제정하였고, 매년 과학, 문예, 체육 분야에서 한 명씩 선발하여 상을 수여했다. 1939년 제4회 과학분야 盛京賞은 세치우타오가 수상했다. 1941년 제6회부터는 언어분야가 증설되어 모두 4명이 수상했다. 왕뤄는 세치우타오를 이어서 盛京賞을 수상했다. 과학분야 盛京時報賞은 주로 만주의과대학에서 추천한 사람이 수상했으나, 이 두 명의 타이완인이 이 상을 수상한 이유는 관련 연구 및 교육에 공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상금으로 300원을 받았다.¹⁰³⁾

(1) 세치우타오 : 그는 세치후관의 동생이며, 타이완총독부의학교를 졸업한 후 1912년 11월 8일 東京 北里전염병연구소에 입사했다. 1914년 중국에 도착한 후 육군 제29사단 이등 군의관과 洮南衛戍병원장, 지린육군병원장, 장수성 분서 군의과장, 산하이관 철로병원 원장 등을 역임했고, 1932년 만주국 건국 후에는 평토펑성 공서사무관과 기정, 경무청 위생과장을 역임했다.¹⁰⁴⁾ 그는 개인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스스로를 연마하는 사람이다. 1939년 만주의과대학 연구소에 들어가서 누룩에 관한 연구와 민간 장기 요법을 연구해서, 같은 해 위에서 언급한 상을 수상했다. 수상 추천이유는 아래와 같다.

103) 《盛京時報》 第10616號, 康德6(1939)年 10月 31日, 晚刊 第1版.

104) 內尾直昌, 《康德元年版滿洲國名士錄》, (東京)株式會社人事興信所, 1934, 第10版, 89쪽. 杜聰明的 설명에 따르면, 그는 1914년 滿洲 도착 후 張作霖의 권유로 奉天省 위생청장을 맡았다. 만주국 성립 후에는 원래 滿洲國 衛生廳 廳長을 맡으려했으나, 謝寧可은 지역에서 실권을 쥐었고, 新京에는 가지 않았다. 杜聰明, 1982, 《回憶錄》, (臺北)杜聰明博士獎學金基金會, 76쪽. 또 다른 설이 있는데, 일본을 떠나 먼저 만주로 가서 奉天省 警官補習所 日語 및 衛生學 교관과 奉天紅十字會 醫學校 교관, 黑龍江省立 醫院 總醫官, 吉林省 陸軍軍醫院 院長 兼 長吉防疫所 所長, 瀋陽兵工廠 附屬醫院 院長, 北寧鐵路 山海關醫院 院長, 奉天省公署 衛生科長 등을 역임했다는 설도 있다. 許雪姬 訪問, 藍瑩如 紀錄, 〈謝大鏞先生訪問紀錄〉, 《日治時期臺灣人在滿洲的生活經驗》, 365쪽.

세치우타오는 민국 3년 이래 만주의 여러 위생기관에서 근무했으며, 특히 대동 원년 5월 이전 평토펜성 공서 위생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무위생 행정에 종사하였고, 민중의 보건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의학연구에 매진하여 다수의 업적을 발표함으로써 의사의 모범을 보여 왔다. 이에 그 공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추천하는 바이다.¹⁰⁵⁾

세치우타오는 1945년 4월 평토펜의과대학 부속병원 원장에 임명되었다.¹⁰⁶⁾ 1949년에 타이완으로 돌아와 타이베이 汐止에 살면서 회안진료소를 개설했다. 그는 1977년에 사망했다.¹⁰⁷⁾

(2) 왕뤼 : 원명은 왕스공이며, 타이베이에서 태어났다. 1927년 만주의과대학에 입학했다. 졸업 후 모교 법의학 교실에서 약 8년 동안 부조교로 일하다가 1937년 만주국 의사로 등록된 후 평토펜 경찰청 위생과 보건계장을 역임했다.¹⁰⁸⁾ 1941년 일본 공중위생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¹⁰⁹⁾ 1942년 후생부가 기정을 역임했다. 그가 상을 추천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사람은 소화 6년 만주의과대학 전문부를 졸업할 당시 학업이 우수하고 인격이 훌륭하여 표창을 받았다. 소화 7년 만주의과대학 부조교와 봉천 시립 동선당의학전문학교 교수를 역임하면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했다. 소화 8년 이후 선양경찰청에서 위생행정을 담당했다. 이 기간 동안 ‘혈액 중 특이 침투성 물질에 의한 각종 유인성 유인 현상’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여 법의학과 혈청학 발전에 기여했다. 소화 13년 만주국 민생부 보건과에 들어가 방역 행정에 매진했다. 이미 다수의 학술논문을 게재했으며, 최근에는 만주국 공식 전염병에 관한 논문도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중의 위생관념을 향상시키는데 공헌하고 있으며, 또한 만주인 의사 재교육에 뜻이 있어 중국어 병리학 서적을 저술하는 등 그 공적이 탁월하다. 이에 위 사람의 이력서와 연구논문 및 저서목록을 첨부하여 추천하는 바이다.¹¹⁰⁾

105) 《盛京時報》，第10616號，康德6(1939)年10月31日，晚刊，第1版。

106) 《滿洲國政府公報》，第3278號，康德12(1945)年5月25日，361쪽。

107) <附錄：謝秋壽老先生事略>，《日治時期臺灣人在滿洲的生活經驗》，375 - 376쪽。

108) 黑田源次，1936，《滿洲醫科大學二十五年史》，(奉天)滿洲醫科大學，148쪽。

109) 中島利重，1984，《米壽の語》，(東京)中島利重先生米壽を祝う會，50 - 51쪽。

해방 후 타이완으로 돌아온 그는 1952년부터 1962년까지 타이베이시 보건센터장을 역임했다.¹¹¹⁾ 그 후 1966년 미국 홉킨스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타이완으로 돌아와서는 타이완대학 의대 교수로 재직했고, 이소피아의 위생 고문을 맡았다. 1976년 미국 일리노이 주립 의료개발센터에서 일했으며, 1979년 일본 오카야마(岡山) 재단법인 소속 오카야마 淳風會 성인병 센터에서 의사로 재직했다.¹¹²⁾

3. 의술로 부자가 된 천장짜

만주에서 활동한 타이완인 의사 중 부자가 된 사람도 많았다. 그중 장화 출신 천장짜는 타이완총독부 의학교 제8회 졸업생(1909)으로 1917년에는 대련에 가서 전임자 멩텐청의 뒤를 이어 핑제선당 병원에 취직해서 13년간 일했다.¹¹³⁾ 그 후 西崗에서 인제병원을 개업했고,¹¹⁴⁾ 苗粟에서 온 쉬룽을 초빙했다. 1930년 좌우해서 몸이 허약해져서 병원을 쉬룽에게 양도한 후 농장을 경영했는데, 농장이름은 ‘인제’였다. 그가 쓴 《양생의 길》에 따르면 그는 스스로 ‘백만장자’이고 했는데, 과연 그는 얼마의 재산이 있었을까?

... 병원장을 사임한 후 다렌 교외에 있는 老虎灘에서 약 5만평 넓이의 사과 과수원을 열었다 광복이 된 그 해에 4,000 그루 사과나무에서 약 백만 개 사과가 났다. 그 당시 어떤 사람이 과수원을 대양 15만원에 구입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했다. 다렌시내에는 집을 51가구에게 임대해 주었다. 약 16만 대양(大洋) 정도가 된다. 이 두 가지만 합쳐도 31만 대양이니, 신 타이완화폐로 환산하면 1,880만 원이다. 그리고 錦州 근처의 Santonin 농장 70여 甲은 계산할 수 없는데, 신 타이완화폐로 적어도 1억 원 이상은 된다.¹¹⁵⁾

110) 《盛京時報》，第11307號，康德8(1941)年10月17日，綜合版，11쪽.

111) <職官志 文職表篇>，《重修臺灣省通志》卷8，第二冊，(南投)臺灣省文獻委員會(1993)，984쪽.

112) 中島利重，《米壽の語り》，50 - 51쪽.

113) 陳章哲，1972，〈爲什麼能從東北回臺〉，《養生之道：八十多年來經驗談》，13쪽.

114) 《盛京時報》，第6309號，民國16(1927)年6月9日，附錄(一).

115) 陳章哲，《養生之道》，13쪽.

1945년 8월 소련군대가 대련을 점령했고, 이어 공산당이 접수했다. 천장 쨌는 먼저 사위 왕따슈가 운영하는 錦州의 금생병원¹¹⁶⁾으로 가서 2년 정도를 머물렀다. 1947년 그는 大連으로 다시 가서 살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모든 재산을 포기하기 결정했다. 그래서 錦州에서 山海關을 거쳐 天津으로 갔다. 다시 한 달 동안 배를 기다렸고, 결국, 1947년 6월에 타이완으로 돌아왔다. 그해 그의 나이 63세였다.¹¹⁷⁾ 타이완으로 돌아온 후 彰化縣 社頭鄉 보건센터장을 퇴임할 때까지 역임했고,¹¹⁸⁾ 90여 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4. 신경의과대학 교수 귀송건

그는 타이베이 의과전문학교 제5회 졸업(1926)생이다. 그는 먼저 싱가포르 빅토리아병원에서 일하다가¹¹⁹⁾ 1929년 11월 사임하고 타이완으로 돌아왔다. 1933년 12월 타이완총독부 중앙연구원 위생부 조수로 일했다. 1933년 12월에 교토제국대학에서 열대위생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 제목은 《적외선과 위생학 연구》였다.¹²⁰⁾ 당시 주일 프랑스에서 의사선발 시험을 치렀는데, 3명 선발에 수 백 명이 응시했다. 타이완인으로는 유일하게 그가 선발되었는데, 그것도 1등으로 뽑혔다. 2년 동안 파리에서 연구하였고, 귀국 후 그는 9개월 동안 유럽을 여행하면서 직접 목격한 유럽 각국의 일본 화폐 통제 상황을 친구에게 알려주면서 총독부가 이 상황을 주목하기를 원했다. 그는 타이베이에서 상하이로 가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그는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렀다가 교토대학 교수의 소개로 1939년 7월 신징의과대학 교수가 되었다.¹²¹⁾ 1940년에는 2급으로 승진했으며,¹²²⁾ 1942년 11월 만주국 의사로 등록했지만,¹²³⁾ 개원을 하지는 못했다. 1944년 9월 1급으로 승진했다.¹²⁴⁾

116) 《臺南市私立長榮中學校友芳名錄》，(臺南)臺南市私立長榮中學校友會，29쪽.

117) 陳章哲，〈養生之道〉，13쪽.

118) 吳銅，〈臺灣醫師名鑑〉，119쪽.

119) 臺灣新民報，〈臺灣人士鑑〉(昭和9年版)，241쪽.

120) 中西利八，1989，〈滿洲人名辭典〉，(東京)日本圖書センター，813쪽.

121) 許及訓，1951，〈醫界怪傑郭松根〉，(臺北)《旁觀雜誌》3，26 - 27쪽.

122) 《滿洲國政府公報》，第1922號，康德7(1940)年9月21日，419 - 420쪽.

전쟁이 끝난 후 신경의과대학은 국민정부가 접수했고, 이 대학은 국립장춘대학이 되었다. 귀송진은 의과대학장 겸 부속 병원장 및 장춘시립 제1병원 원장으로 임명되었다.¹²⁵⁾ 일본이 패망하자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고, 이에 창춘 타이완동향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타이완성 행정장관실 및 UNRRA(연합국선후구제총서)와 교섭하여 동료들이 타이완 귀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¹²⁶⁾ 타이완에 돌아온 후 타이완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교무주임으로 임용되었고, 미국후원회의 도움을 받아 1년 반 동안 미국에서 연구했다. 그 후 타이완대학 공중위생학원장을 역임했고,¹²⁷⁾ 1955년 내정부 위생과장을 역임 한 후 1965년에는 WHO 고급 고문을 맡았다.¹²⁸⁾ 그는 1982년 프랑스에서 사망했다.

5. 유일한 여성 고등기술관 세지우즈

세지우즈는 세치우관의 차녀로 의사집안에서 태어났다. 여섯 명의 형제 자매는 모두 의사라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 있다. 따라서 그녀가 의사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당시 만주의과대학은 만주 최고의 의과대학이었지만, 여학생 비율은 높지 않았다. 당시 전문부는 4년을 공부해야 했고, 한개 반은 약 50명이 있었다. 그녀가 속한 반에는 10명이 여학생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편이다. 다른 반의 경우는 겨우 한두 명 정도였다. 타이완인과 만주인은 적었고, 베이징 등지와 일본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다. 졸업 후에는 교수 증명서만 있으면 되었다. 다른 무슨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었다. 졸업과 함께 자동적으로 자격증과 면허가 발급되었다.¹²⁹⁾

123) 《滿洲國政府公報》，第2666號，康德10(1943)年4月19日，441쪽.

124) 《滿洲國政府公報》，第3069號，康德11(1944)年9月2日，27쪽.

125) 杜聰明，〈介紹中華學術獎金得獎人郭松根博士〉，《杜聰明言論集》第一輯，693쪽.

126) 許雪姬，2017，〈戰後京滬、平津、東北等地臺灣人團體的成立及在二二八事件中的對臺聲援〉，《七十年後回顧：紀念二二八事件七十週年學術論文集》，(臺北)中央研究院臺灣史研究所、二二八事件紀念基金會，100쪽.

127) 許及訓，〈醫界怪傑郭松根〉，26 - 27쪽.

128) 朱真一，2013，〈府城醫學史開講〉，(臺北)心靈工坊文化事業有限公司，157쪽.

129) 許雪姬訪問、藍瑩如紀錄，〈謝久子女士訪問紀錄〉，收入《日治時期臺灣人在滿洲的生活經驗》，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만주국 고등문관 시험에 참가해야 했다. 만주국 멸망 전에 타이완인 고위 관리는 57인이 있었다. 그중 행정관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관 19명, 교관 7명, 사법관 4명이 있었다. 세지우즈는 1942년 9월 23일 고등관 시험에 합격해서 같은 해 10월 1일 공립병원 고등관 시보가 되었다.¹³⁰⁾ 그러나 공립병원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은 그녀는 같은 해 말에 사직한 후¹³¹⁾ 남편이 있는 백천병원에 와서 함께 병원을 경영했다. 개업한 지 3년 만에 일본이 항복했고, 1948년 팔로군이 창춘을 포위했을 때 비행기를 타고 만주를 탈출했다.¹³²⁾ 타이완으로 돌아와 의란병원에 취직했고, 1950년 사록에 신생병원을 열었다. 2001년에 은퇴했다.¹³³⁾

세지우즈 이외에도 여러 여성의사들이 만주에 갔는데, 예를 들어 커밍텐은 도쿄여자의과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모교의 부속병원에서 일한 후 다롄 멩텐칭이 운영한 박애병원으로 가서 재직했다. 1929년 타이난으로 돌아와 애육당 산부인과 병원을 개업했다.¹³⁴⁾ 량진렌은 푸순 천생병원 량자이의 조카이며, 도쿄여자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다.¹³⁵⁾ 남편 양덩하이와 함께 안산에서 천생병원을 개원했다. 량진취는 량진렌의 여동생으로 남편인 뤼부위에와 같이 푸순 천생병원에서 의사로 재직했다.¹³⁶⁾

333쪽.

130) 《滿洲國政府公報》，第2666號，康德10(1944)年4月19日，441쪽.

131) 《滿洲國政府公報》，第2853號，康德10(1944)年12月6日.

132) 許雪姬訪問、鄭鳳凰紀錄、〈劉建止先生訪問紀錄〉，《日治時期在「滿洲」的臺灣人》，18 - 19쪽.

133) 許雪姬訪問、藍瑩如紀錄、〈謝久子女士訪問紀錄〉，《日治時期臺灣人在滿洲的生活經驗》，325쪽.

134) 吳銅，《臺灣醫生名鑑》，213쪽.

135) 吳銅，《臺灣醫生名鑑》，260쪽. 《滿洲國政府公報》，第1639號，康德5(1938)年10月29日，584쪽.

136) 許雪姬訪問、蔡說麗紀錄，1994，〈梁許春菊女士訪問紀錄〉，《口述歷史》5，300쪽. 吳銅，《臺灣醫生名鑑》，244쪽.

V. 만주국 멸망 후의 타이완인 의사

만주국 멸망 후 타이완인들은 일본인이나 조선인 같이 현지 주민들의 복수를 당하지 않았지만 상가집 개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 전쟁이나 평시에 관계없이 의사들은 전쟁의 목표물이다. 특히 전후 중국이 만주를 접수하였지만, 먼저 소련군이 점령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각각 미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은 국민당과 공산당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고, 부상병이 속출했다. 따라서 의사도 두 세력이 서로 경쟁적으로 빼앗으려는 대상이 되었고, 타이완인 의사들은 두 당의 중간에서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물론 대부분의 타이완인 의사들은 가능한 한 빨리 타이완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지만, 스팅전투와 같은 국공내전으로 인해 타이완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늦어졌다. 따라서 중국 북부와 중남부에 거주했던 타이완인 의사들 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귀국해야만 했다. 과연 타이완으로 돌아가서 순조롭게 전에 하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동베이에 남은 채 타이완으로 돌아가지 못한 의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타이완의 특별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일부 만주에서 활동한 의사와 그 가족들은 종종 새로운 ‘왕도낙토’를 찾아 제2차 이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부는 일본으로, 일부는 미국이나 캐나다, 뉴질랜드나 호주로 갔다. 이는 매우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1. 국공 양당 사이에 둘러싸여

종전 후 동베이는 먼저 소련 군대는 점령했고, 이어 팔로군이 이어받았다. 공산당이 푸순으로 진격한 후 환자를 데리고 천생병원으로 와서 량자이에게 치료하도록 했다. 량자이는 감히 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었고, 그들은 양심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했다. 그러나 이후에 공산당원들은 량자이가 국민당원을 숨겨주었고, 국민당과 공모했다고 하면서 체포했다. 구치소 위생은 좋지 않아 회귀열이 생겼다. 반드시 606 침을 맞아야 하지만 량자이는

당뇨병이 있어 606을 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치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사를 맞아야만 했다. 그 이후 당뇨병은 심해졌고, 생명이 위중했다. 그때 마침 공산당 철수해야했고, 부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천생병원의 의사들을 데리고 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미 그 소식을 듣고 탈출했다. 량자이는 그날 밤에 사망했다.¹³⁷⁾

양수이런은 1923년에 타이베이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학전문학교에서 공부한 후 다롄의 멩텐청 박애병원에서 일했다. 후에 하얼빈에 가서 중화병원을 설립했다.¹³⁸⁾ 그리고 후에는 다롄 浪花町에서 민생병원을 세웠고, 8,9개의 별장을 매입했다.¹³⁹⁾ 전후 다롄 보건국장을 지내다가 공산당에게 체포되어 2개월 동안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후 가족과 함께 잉커우로 피난했다가¹⁴⁰⁾ 다시 상하이로 갔다. 그는 해군장교의 신분으로 해군병원 원장을 역임한 후 타이완으로 돌아왔고, 1950년에 병사했다.¹⁴¹⁾

멍텐청 등 다롄에 있던 타이완인 의사들은 대련에 진군한 사람들이 중공군인지 모른 채 국기를 들고, 전통 중국복장을 입고 환영하러 갔다가 후시 중공군이 그들과 국민당과 관련 있다고 생각할까봐 돌아와서는 입고 있던 옷가지를 불태웠다. 다음날 멩텐청은 체포되었으며, 공산당은 그가 스파이라고 생각했다. 한 달 동안 구금된 후, 그는 더 이상 원장이 아니었고, 그는 자신의 병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고용되었다.¹⁴²⁾ 양수이가 검거된 것도 똑같은 것으로 예상된다.

루쿤산은 하얼빈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안산 천생병원에 취업했다. 전쟁

137) 許雪姬訪問、蔡說麗紀錄、〈梁金蘭、梁育明姊弟訪問紀錄〉、《口述歷史》(臺北)5(1994.6), 313-314쪽. 조카머느리 梁許春菊의 말에 따르면, 梁宰와 청년단은 접촉이 있었고, 약간의 돈을 찬조했다. 그래서 공산당과 접촉이 있고 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잡아서 세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許雪姬 訪問、蔡說麗 紀錄, 1994, 〈梁許春菊女士訪問紀錄〉、《口述歷史》5, 305쪽.

138) 〈馬賊と大豆粕及び張作霖で有名な滿洲〉(下), 《臺灣民報》, 第296號, 民國19(1930)年 1月29日, 11쪽.

139) 許雪姬訪問、蔡說麗紀錄、〈許文華先生訪問紀錄〉、《日治時期在「滿洲」的臺灣人》, 412-413쪽.

140) 許雪姬 訪問、曾金蘭 紀錄, 1994, 〈楊蘭洲先生訪問紀錄〉、《口述歷史》5, 155-156쪽.

141) 盧昆山, 《七十回憶》, 19쪽.

142) 許雪姬 訪問紀錄、〈葉彩屏女士訪問紀錄〉、《日治時期在「滿洲」的臺灣人》, 131쪽.

중 산업지역이 자주 폭격 당하게 되자 다렌으로 왔지만 다렌 또한 공습을 받았고 이에 와팡텐(瓦房店)에 설립한 자애병원으로 옮겼다. 전쟁이 끝나자 와팡텐은 소련군이 주둔했다. 그들은 물건을 빼앗고, 부녀자를 납치해 갔다. 이어서 중공군이 치안은 개선되었다. 국공내전 당시 공산당은 의사들에게 부상병을 치료하도록 요구했고, 후에는 매우 위험한 전선으로 이동시켰다. 그 당시 부인은 임신했지만 돌볼 수 없었다. 후에 중공군은 상황이 불리해 지자 철수했다. 국민당 군대가 입성했지만, 치료비를 주지 않았고, 부상병이 주사를 맞은 후 사망하자 억류되었다. 국민당 군대는 와팡텐에서 반년 만에 철수하려고 했을 때 친구는 루쿤산에게 국민당을 따라가라고 조언했다. 그렇지 않으면 중공군이 재입성할 때 위협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루쿤산은 국민당 군대를 따라 선양에 가서 장덕차이가 개원한 병원에서 일을 도왔다. 그러나 부인은 여전히 와팡텐에 머물러 있었다. 1948년 10월 루쿤산은 타이완으로 돌아왔고, 그의 아내는 1949년 한국 부산을 거쳐 타이완으로 돌아왔다.¹⁴³⁾

2. 타이완에 돌아온 의사들의 다양한 운명

만주에서 취득한 졸업증과 공무원 자격이 인정될까? 전쟁이 끝나자 중화민국은 만주국을 괴뢰정권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대학졸업 자격은 심사를 거친 후 인정되었으며,¹⁴⁴⁾ 의사 자격 등은 다시 등록되었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수행 년도는 포함되지 않았다.¹⁴⁵⁾ 만주의 타이완인은 타이완에 늦게 돌아왔기 때문에 일부는 공립병원에 들어갔지만, 대부분은 지역보건소에 취직했다.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기금이 필요하므로 환자와의 관계가 필요했다. 정부는 보건소의 야간근무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소 근무는

143) 許雪姬 訪問, 蔡說麗 紀錄, 1994, <盧昆山, 李謹慎夫婦訪問紀錄>, 《口述歷史》5, 278 - 286쪽.

144) 羅久蓉, 1993, <抗戰勝利後教育甄審的理論與實際>,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22》(下), 205 - 231쪽.

145) 楊學 總主編, 2003, <辦理臺灣省考試注意事項(1947年10月)>《中國考試史文獻集成》,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5 - 231쪽.

과도기에 가장 좋은 선택이다. 만주의과대학 전문부를 졸업한 린친밍은 타이중시 남부 보건소 소장이었으며, 그의 형제 린바오지는 타이 중 서부지역 보건소의 의사이자 감독이었고, 사촌인 린이저우는 풍원진 보건소 의사였다.¹⁴⁶⁾ 사실상 의사직업을 잃은 것은 아니다. 물론 왕뤄와 귀송건 등은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공중 보건 또는 의학교육 분야에 대한 고용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전쟁이 있는 지 2년이 되지 않아 타이완에서는 정치적 비극이 일어났는데, 228사건이다. 화롄의 장치량(총독부의학교 졸업, 만주의사 등록, 명텐청의 동창생)과 장중렌, 장귀렌가 228사건 중에 鳳林鎮 교외의 묘지에서 피살되어¹⁴⁷⁾ 타이완 전체에 큰 관심사를 일으켰다. 전쟁 후 4년 중화민국정부는 타이베이로 이주했으며, 공산당에 대항하고 정치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1949년부터 색백공포가 시작되었다. 북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의사 중에는 일본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만주국 三江省 의사시험에 합격한 황원공은 전쟁후기에 鶴岡 광산병원 외과직원으로 취직했다.¹⁴⁸⁾ 타이완으로 돌아온 후 屏東 春日鄉 보건소에서 일할 때 ‘타이완성 공위회 연소지부 사건’에 연루되어 15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1950년 5월 장제스 정부에 의해 사형을 선고 받았다.¹⁴⁹⁾ 도쿄제국대학을 수료하고 타이완대학 의학원을 졸업한 린언쿠이도 도쿄 공습 때 타이완으로 피난 왔으나, 역시 백색 공포 시기에 ‘타이완대학 의학원 학생위원회 사건’ 연루되어 10년 형을 선고받았다.¹⁵⁰⁾

3. 중국 동북부에 머물고 있는 타이완의 의사들

천장쥬는 타이완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재산을 포기했다. 그는 그가 쓴 《양생의 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그러나 나보다 4살 더 많은 명텐청

146) 吳銅, 《臺灣醫師名鑑》, 99쪽, 83쪽.

147) 李筱峰, <張七郎>, 張炎憲 主編, 2008, 《二二八事件辭典》, (臺北縣)國史館, 333 - 334쪽.

148) <居住長春臺灣省民名簿>, 1946年 1月 28日.

149) 臺灣省保安司令部判決書, (42)年度字 第0693號.

150) 臺灣省保安司令部判決書, (40)安潔字 第0632號.

이나 나보다 10살 어린 젠런남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처한 상황은 나하고 비슷하지만, 그들은 재산을 포기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남았다. 듣자하니 그 이후의 생활이 자유롭지 못했고 일은 힘들었다고 했고,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다. 아마도 흥이 많고 길이 적을 것이다.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¹⁵¹⁾ 다롄에서 병원을 설립한 멩텐청과 젠런난은 타이완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먼저 젠런난의 처남 루쿤산의 보도데 따르면, “매부는 모든 사업이 동베이에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고, 결국 타이완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공산당이 대륙을 쟁취한 후 가장 먼저 매부의 재산을 접수했고, 병원은 공립병원으로 바뀌었으며, 매부는 그 병원의 외과업무를 담당했다. 건국초기 공산당은 매부를 중시하여 다롄시 위생과장 겸 법의사로 임명했다. 백화제방 시기 매부는 문장을 발표했지만 공산당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비판을 받았다. 그 후 수년간 시골에서 일하고 괴로운 나머지 약을 먹고 자살했다.”¹⁵²⁾ 멩텐청의 경우는 《랴오닝성 위생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멩텐청 부부에 관한 소식은 1946년 5월 25일 《인민호성보》에 그의 모든 재산은 다롄시 인민에게 봉헌한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¹⁵³⁾ 그러나 멩텐청 고향에서 출간된 《대동현사, 인물편》에는 다른 각도에서 서술되어 있다. 멩텐청은 전후 중공군에 의해 체포되어 1개월 동안 투옥되었으며, 출옥 후 모든 병원을 공안군에 양도해야만 했다. 1946년 공안국종합 병원으로 개명되었지만 여전히 명목상으로는 학장이었지만 월급은 매우 낮았다. 개인행동이 통제되었고, 병원 업무도 통제되었다. 1954년에 병원은 旅大 위생국으로 옮겨졌고, 멩텐청은 인민해방군 215 병원 학장으로 이직했다. 1967년 8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¹⁵⁴⁾ 량자이의 아들

151) 陳章哲, 《養生之道》, 13쪽.

152) <盧昆山、李謹愼夫婦訪問紀錄>, 《口述歷史》(臺北)5, 1994.6, 288 - 289쪽. 또한 東北을 경험한 楊蘭洲가 있다. 같은 책 156쪽에는 “가장 처참한 것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簡仁南은 大連에서 병원과 호텔을 경영했는데, 후에 공산당에 의해 박해를 받았고, 스스로 자살했다.

153) 《遼寧省衛生志》, 647쪽.

154) 王河盛 等, 2001, 《臺東縣史·人物篇》, (臺東)臺東縣政府, 76쪽.

량유밍은 전쟁 후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이완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천생병원을 승계했지만, 1948년 瀋瀋전투 후에는 타이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공산당은 연합병원을 건설하고자 했다. 그래서 1951년에 건국 후에 천생병원과 기타 다섯 개 진료소를 합병하여 연합병원을 만들었고, 량유밍은 그 병원의 부원장이 되었다. 1956년에는 다시 시립병원과 합병하였고, 문혁 시작 후에는 진료를 볼 수 없었다. 1년이 지난 뒤 부원장의 신분은 회복되었고, 1981년 푸순 위생국 국장에 임명되어 퇴임할 때까지 근무했다. 1993년 해방 후 처음으로 타이완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의 인터뷰에 응했다.¹⁵⁵⁾

스린위찬은 종전 직후 타이완으로 돌아와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다시 상하이로 가서 왕리밍, 양링상과 함께 타이완병원을 개원했다. 그러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문을 닫은 후 군 병원에서 근무했다. 상하이가 해방된 후 해방군 관리 하에 들어갔고, 그는 계속해서 근무했다. 문혁기간에도 별 탈 없이 보내다가 1981년에 사망했다.¹⁵⁶⁾

4. 또 한 번의 이산

타이완인 의사들이 왜 동배이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코헨(Cohen)의 ‘보조형 디아스포라’ 이론을 차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식민주의자와 상이한 죽군(타이완인)은 식민지 정부의 확장과 함께 타지에서 상업적 무역을 개척한 것이고, 현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이 식민정부와 합작한 것과 같다. 유럽인들이 식민화한 동남아에 진출한 중국 상인, 카리브 해와 서아프리카의 레바논인 또는 동아프리카의 인도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때로는 협력이나 지원의 역할이 상업적 무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¹⁵⁷⁾ Mcleod는 1세대와 2세대(다른 장소에서 태어난)는 고향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¹⁵⁸⁾ 그러나

155) <梁金蘭、梁育明姊弟訪問紀錄>,《口述歷史》5, 1994.6, 316 - 318쪽.

156) 許雪姬 訪問, 王美雪 紀錄, <侯金魚女士訪問紀錄>,《日治時期在「滿洲」的臺灣醫生》, 93 - 96쪽.

157) Robin Cohen, 2008, “Global Diaspora: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second edition, pp. 83 - 102.

식민주의자가 실패했을 경우 그 추종자들은 계속 그 지역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갈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그리고 만일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양자의 생각을 차이가 있다. 만주에서 가서 살던 타이완인들은 전후 귀향문제에 있어, 비록 자신의 노력과 우수성이 있지 타이완에서의 삶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2세대들은 타이완은 만주처럼 그렇게 넓지 않다고 여길 것이다. 게다가 전후 타이완은 백색공포까지 더해져 1971년 연합국에 의해 퇴출되었고, 일본과 미국은 중화민국과 단교하였다. 그래서 타이완보다 더 넓고 안전한 곳을 찾는 당연하고, 정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추구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만주를 경험 타이완인은 다시 한 번 고향을 떠나 새로운 ‘왕도낙토’를 찾고자 할 것이다.

만주에 갔던 1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첫 번째로 선택한 곳은 언어의 장벽이 없고, 과거 식민주의 국가였던 일본이다. 그 다음 만주에 갔던 2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강대국 미국이다. 그들은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것은 첫 번째 지향으로 삼는다. 일단 미국에 도착하면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만주의 과대학을 졸업한 후 타이완으로 돌아온 타이완인 의사를 예로 들면, 당시 타이중 출신 의사는 126명인데, 그중 1/5이 다시 디아스포라의 길을 떠났다.¹⁵⁹⁾ 1958년 일본에서 반포된 새로운 국민건강보험법은 타이완이 1958년에 시행한 전민보건과 같다. 지방 정부는 자체적으로 의료시설을 준비하고, 의사를 고용해야 하지만, 외진 지역은 의사가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 소위 ‘무의촌’은 반경 4킬로미터 이내의 의료기관이 없으며, 50인 이상이 거주하더라도 쉽게 의료시설을 찾을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의사가 부족하여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의사를 초빙한다.¹⁶⁰⁾ 우첸싱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158) John McLeod, 2000, *Beginning Postcolonialism*,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p. 225-238.

159) 劉建止 의사는 126명의 타이완 滿洲醫科大學 졸업생 통신명신을 제공해주셨다.

160) 《大島村郷土誌》, 255 - 256쪽. 范燕秋, <戰後臺灣醫師赴日本行醫之研究—從“帝國視野”到“國

타이완에서 50세 전후이거나 퇴직에 가까운 의사들은 젊은 의사들과의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일본 무의촌에 가서 일하려고 했다.¹⁶¹⁾ 실제로 무의촌에 간 의사 중에는 60세도 있었다. 그들은 젊은 의사와의 경쟁력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타이완의 정치 환경을 싫어해서도 아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일본 교육을 받고 자라서 언어의 장애가 없으며, 만일 무의촌에서 주는 월급과 보너스가 많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린친밍은 일본 무의촌에서 10년 정도 보냈다. 그는 큐슈의 5개 섬 중 황도에서 6년 여 동안 진료했고, 다시 오이타 현 중진의 耶馬溪에서 3년 간 일했다. 1988년 비로서 일본을 떠나 자녀들이 있는 미국 워싱턴 주 스포캔 시로 갔다.¹⁶²⁾ 가족 중 장녀가 가장 먼저 미국으로 가서 캘리포니아의 연구소에서 공부했고, 그 후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갔다. 린친밍의 사촌인 린이저우는 오히려 일본의 무의촌에서 일하고 있다. 1959년 2월 일본 나가사키 현 오시마시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소를 설립했는데, 1980년에 시라카와지희라는 의사가 연세가 많아 문을 닫았다. 진료소에서는 1년 계약 조건으로 의사를 모집하였는데, 첫 번째로 한국의 박유정 박사가 지원했다. 그리고 이어서 부임한 사람이 바로 린이저우인데, 1981년에서 1982년까지 일했다.¹⁶³⁾ 그 밖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례는 타이완대학의학원을 졸업한 양정자오인데, 그는 만주 거주 경험이 있는 의사 양진한의 장남이다. 그는 1950년 학술교류라는 명목으로 미국으로 갔고, 캐나다가 이민자에 대해 개방적이고 자유롭기 때문에 1964년에 캐나다로 이민 가서 1966년에 산부인과 의사 면허를 획득했다. 1967년과 1969년에 각각 모친과 의료 업무에서 퇴직한 아버지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그러나 동생들은 일본과 미국으로 이민했다.¹⁶⁴⁾ 위의 예를 보면, 타이완인들은 만주로 갔

際視野”>, 8-9쪽. 본문 초고는 范燕秋 교수가 제공해 주셨다.

161) 吳建興, 1977, <日本無醫村裡的太上皇—臺灣醫師—>, 《杏園》24, 94-95쪽.

162) 許雪姬 訪問, 劉芳瑜 紀錄, <林江金素女士訪問紀錄>, 2015년에 미국 워싱턴주 Spokane시 탐방, 미발표 원고.

163) 林肇周이 일본 無醫村에서 활동에 자료는 중앙연구원 타이완사 연구소 포닥과정에 있었던 簡宏逸이 제공했다.

고, 마치 제비처럼 타이완으로 돌아온 몇 년 후에 두 번째 디아스포라의 길로 들어섰다. 과거 이산과 회귀에 대해 연구 한 학자들은 이 현상을 소홀히 했다.

VI. 결론

이 글에서는 만주의과대학 기록 보관소와 구술사를 사용하여 타이완인들이 왜 만주로 갔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들은 학업, 구직을 위해 떠났고, 일본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주로 갔다. 만주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타이완인은 100여 명에 이른다. 만주는 타이완을 대신하여 많은 의사를 배양했고, 타이완, 일본, 한국에서 의사 자격증을 들고 만주에 가서 의료 활동을 전개한 의사도 100여 명에 이른다. 타이완인 또한 100여 명이 만주로 가서 병원에 종사했다. 만주에서 일한 타이완인 의사들은 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의술을 제공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은 일본인 구역에 설립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평소 만주 현지인들과 화목하게 지냈고, 만주인들에게 의술을 인정받았으며, 대형병원을 설립하였고, 심지어 부자가 된 의사도 있었다. 만주국 멸망 후 타이완 의사들은 서둘러 타이완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현지 중국인들에게 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만주에서 일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타이완으로 돌아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시대가 바뀌었고, 중국정부가 통치한 지 2년이 채 되지도 않았을 때 228사건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고, 4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중국에서 패하고, 복구되기도 전에 계엄령이 내려져 타이완은 계엄시기에 들어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속에서 만주 경험이 있는 의사들이 많이 희생되었다. 반면 만주에 남아서 타이완에 돌아오지 않은 타이완인 의사들이 운영했던 대형병원도 압수당했고 중국의 각종 변화를 경험하면서 고된 시간을 보냈다. 타이완으로 돌아온 만주 의사들은

164) 許雪姬 訪問, 劉芳瑜 紀錄, 2015, <楊正昭先生訪問紀錄>, 캐나다 벤쿠버 탐방, 미발표 원고.

자신의 힘으로 다시 병원을 열어 환자들을 돌보고, 자녀를 키웠다. 타이완의 정치상황이 혼란스럽고, 타이완이 만주만큼 넓지 않기 때문에 만주를 경험한 의사들은 다시 한 번 일본과 미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만주를 경험한 약 3천명의 타이완인 중에 200여 명의 의사가 있었으니 그 비율은 낮다고 할 수 없고, 화베이, 화중, 화남 지역의 의사 수 보다 비율이 높다. 일본 점령시기 타이완인 의사는 가장 중요한 수출품 중의 하나였다. 그들 중 일부는 여러 명의 의사를 배출하여 의사 집안을 형성하였으며, 서로 긴밀히 연락망을 구축하여 서로 돕고 지냈다. 처음 낯선 만주에 도착한 의사들은 다롄의 박애병원이나 푸순의 천생병원으로 가서 취직했고, 먼저 현지 언어를 배우고, 현지 사정을 숙지하여 스스로 개원하기도 했다. 그리 길지 않은 수 십 년이라는 기간 동안 타이완의사가 만주에서 남긴 족적은 그동안 타이완에서 중국 경험자는 모두 한간이거나 전범의 혐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경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했다. 장기간의 인터뷰를 통해 증언을 얻지 못했다면, 이러한 역사는 역사의 급류에 휩쓸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고, 만주를 경험한 선배들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 《盛京時報》
《滿洲國政府公報》
《滿洲醫科大學一覽》，滿洲醫科大學，1941
《滿洲國現勢》，1938
《臺灣總督府旅券下付簿》，昭和11年
《臺灣人士鑑》，昭和12年
〈滿洲醫科大學昭和十年五月至十四年五月休學及退學の文件〉，昭和十年，〈生徒學籍ニ關スル件〉
〈國立新京醫科大學招生公告〉，1938，〈滿洲國政府公報〉第1328號
〈滿洲國立醫科大學度日系學生募集公告〉，1940，〈滿洲國政府公報〉第1948號
滿洲文化協會，1933，〈共同防疫〉，〈滿洲年鑑(五)〉
謝春木，1930，〈新興中國見聞記〉，〈臺灣人は斯く觀る〉，龍溪書舍
中溝新一，1938，〈醫師の取締〉，〈滿洲年鑑〉(四)，日本図書センター
內尾直昌，1934，〈康徳元年版滿洲國名士錄〉，(東京)株式會社人事興信所
本田六介，1940，〈日本醫籍錄〉，醫事時論社
豐田要三，1942，〈滿洲帝國概覽〉，滿黑田源次，1936，〈滿洲醫科大學二十五年史〉，滿洲醫科大學洲事情案內
郭松根，民國35年2月23日，〈爲呈請指定輪便接回東北台胞由〉
賴郁君，2013，〈日治時期的臺灣漢醫藥〉，(臺中)國立中興大學 歷史學系 博士論文
王泰升，2017，〈去法院相告：日治臺灣司法正義觀的轉型〉，(臺北)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
許雪姬，2001，〈日治時期赴華南發展的高雄人〉，〈2001年高雄研究學報〉，(高雄)高雄市社區大學促進會，
景福基金會 編，1992，〈國立臺灣大學景福校友通訊錄〉，景福基金會
크리스티 저，矢內原忠雄 역，1982，〈奉天三十年〉，岩波書局
滿洲醫科大學輔仁會，1978，〈滿洲醫科大學，專門部附屬藥學專門部，附屬看護婦養成所沿革略〉，〈會員名簿〉
吳昌禮，2015，〈吳昌禮醫師手記〉，〈日治時期臺灣人在滿洲的生活經驗〉，中央研究院 臺灣史研究所
郭衛東，1993，〈近代外國在華文化機構〉，上海人民出版社
許雪姬 訪問，吳美慧 記錄，1995，〈黃順記先生訪問紀錄〉，〈口述歷史〉6
許雪姬，2004，〈翁逢達先生訪問紀錄〉，〈日治時期在滿洲的臺灣人〉，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許雪姬，2002，〈日治時期澎湖瓦硯籍的醫生〉，王國裕 編輯，〈澎湖研究第一屆學術研討

- 會論文集》，澎湖縣文化局
- 許雪姬, 2017, 〈戰後京滬、平津、東北等地臺灣人團體的成立及在二二八事件中的對臺聲援〉, 《七十年後回顧：紀念二二八事件七十週年學術論文集》，中央研究院臺灣史研究所, 二二八事件 紀念基金會
- 陳延媛, 2012, 〈放眼帝國、伺機而動：在朝鮮學醫的臺灣人〉, 《臺灣史研究》
- 大田豐正, 1991, 《新京醫科大學圭泉會名簿》，新京醫科大學圭泉會本部
- 臺大同學會, 1952, 《臺大畢業同學錄》
- 臺灣省醫師公會, 1966, 《臺灣省醫師公會所屬各縣市局醫師公會》，臺灣醫界社
- 吳銅, 1954, 《臺灣醫師名鑑》，臺灣醫藥新聞社
- 《臺灣同胞在大陸》畫冊編委會, 1993, 《臺灣同胞在大陸》，海風出版社
- 盧昆山, 1979, 《七十回憶》，豐生出版社
- 王河盛 등, 2001, 《臺東縣史·人物篇》，臺東縣政府
- 東京醫學專門學校, 1941, 《南瀛會名簿·會誌第六刊》，(東京)東京醫學專門學校
- 滿洲國史編纂刊行會, 1971, 《滿洲國史》，財團法人滿蒙同胞援護會
- 林吉崇, 1997, 《臺大醫學院百年史》(上), 國立臺灣醫學院
- 臺灣總督府警務局, 1986, 《臺灣總督府警察沿革誌》(三), 綠蔭書房
- 郭瑋, 1989, 〈大連地區建國前的臺灣人及其組織狀況〉,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遼寧省 大連市委員會 文史資料委員會 編《大連文史資料》6
- 王柏懷, 1990, 〈孟天成與博愛醫院〉, 《大連文史資料》7
- 范燕秋, 2000, 〈從臺灣總督府檔案看日治時期的公共衛生〉, 國史館 編著, 《臺灣史料的蒐集與運用研討會論文集》，國史館
- 李騰嶽, 1952 - 1962, 《臺灣省通志稿·政事志衛生篇(一)》，臺灣省文獻會
- 許雪姬, 2014, 〈滿洲國政府中的臺籍公務人員〉, 許雪姬編, 《臺灣歷史的多元傳承與鑲嵌》，中央研究院臺灣史研究所
- 滿洲聯合齒科醫學會, 1943, 《本會所屬各齒科醫師會會員名簿》
- 〈卒業生の活躍狀況を語る座談會〉, 1938, 桑原俊一郎 編, 《あきら第52號彰化第一公學校 創立四十周年紀念》，彰化第一公學校
- 顧明義 等, 1991. 《日本侵占旅大四十年史》，遼寧人民出版社
- 入江耀子, 1998, 《貴妃は毒殺されたかー皇帝溥儀と關東軍參謀吉岡の謎》，新潮社
- 中島利重, 1984, 《米壽の語り》，中島利重先生米壽を祝う會
- 〈職官志 文職表篇〉, 1993, 《重修臺灣省通志》卷8, 臺灣省文獻委員會
- 陳章哲, 1972, 〈爲什麼能從東北回臺〉, 《養身之道：八十多年來經驗談》
- 中西利八, 1989, 《滿洲人名辭典》(북간본), 日本圖書センター
- 許及訓, 1951, 〈醫界怪傑郭松根〉, 《旁觀雜誌》
- 杜聰明, 〈介紹中華學術獎金得獎人郭松根博士〉, 《杜聰明言論集》第一輯
- 朱眞一, 2013, 《府城醫學史開講》，心靈工坊文化事業有限公司

吳建興, 1977, <日本無醫村裡的太上皇－臺灣醫師－>, 《杏園》24

Robin Cohen, 2008, *Global Diaspora: An Introduction*, Routledge, second edition

John MeLeod, 2000, *Beginning Postcolonialism*, Manchester University Press

투고일 : 2019년 04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4월 23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4월 23일

■ Abstract ■

Taiwanese Doctors in Manchukuo

Hsu, Hsueh-chi (Academia Sinica)

After the Qing Dynasty ceded Taiwan to the Empire of Japan in May 1895, Qing Chinese who did not withdraw from Taiwan all obtained Japanese nationality in May 1897. Taiwan became an overseas territory of Japan's empire. In 1905, Japan defeated Russia, took over Dairen and Port Arthur, which had been leased to Russia by Qing, and set up Kantoshu, gradually invading Manchuria. In 1932, Japan-supported Manchukuo was established, and Northeastern China came under Japanese imperial power. During the 40 years of Japan's control of Manchuria to Japan's defeat in WWII, at least 3,000 Taiwanese arrived in Manchuria. This 200 Taiwanese doctors, many of whom have been erased or forgotten in history.

This essay explores what drew Taiwanese doctors to Manchuria, and how these doctors acquire the qualifications to set up large hospitals that attracted Taiwanese doctors of different specialties. This research consulted various archives, directories of doctors, official bulletins, newspapers, and oral history and interviews of persons involved to investigate how these doctors served local residents. Several of these doctors were renowned professors and females. This included Huang Zizheng, the personal doctor of Manchukuo Emperor Pu Yi. Moreover, two these doctors had received the Shengjing Times Prize. The last part of the article probes what happened to these doctors after the collapse of Manchukuo, and investigate whether these doctors stayed in Manchukuo or returned to Taiwan to join a second diaspora.

Key words : Taiwanese Doctors, diaspora, Manchukuo, Manchuria, Japan
--